

2018 KB골든라이프보고서

2018. 12

황원경 | 정인 | 김진성

 KB금융지주 | 경영연구소



우리 부부 잘 사는 게 자식들 돕는 거죠

은퇴하고 나이 들었다고
자식한테 부담주기 싫어요
그래서, **KB골든라이프**로
다 준비해 뒀습니다
우리 잘 사는 게
애들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년에 열 두번,
월급날의 행복을 은퇴 후에도

**KB골든라이프
12번의 행복**

KB 골든라이프 12번의 행복

국내외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상품만을 엄선한 맞춤형 분할지급식 상품 Selection 브랜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고객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8-1296호(유효기간: 2018.12.14~2019.03.31)

2018 KB골든라이프보고서

2018. 12

황원경 | 정인 | 김진성

 KB금융지주 | 경영연구소



Contents

요약	9
I. 한국 가구의 노후대비 자산	16
I-1. 한국 가구의총자산 구성 현황	16
I-2. 한국 가구의 5-Type 연금보유 세그멘테이션 현황	18
II. 한국 가구의 노후 재무준비 현황	22
II-1. 가구 소득 및 순자산 현황	22
II-2. 은퇴 시 노후 소득 영향 요인	25
II-3. 소득 절벽과 금융 자산 활용	29
III. 한국 가구의 노후·은퇴 인식과 태도	33
III-1. 노후·은퇴에 대한 인식과 태도	33
III-2. 노후·은퇴 시기의 경제생활	35
III-3. 노후·은퇴 준비 행동 및 정보 습득	39
IV.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핵심자산 인식 및 관리 현황	43
IV-1. 부동산 관련 인식	43
IV-2. 개인연금 관련 인식	46
IV-3. 목돈 지출 및 충당 방법	52
IV-4. 투자유형 및 자산관리 인식	53
[참고 1: 연구방법]	58
[참고 2: 용어정의]	59

[요약]

한국가구의 총자산은 9,884조원,
노후대비금융자산은 2,692조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

한국 가구의 총자산은 9,884조원으로, 부동산(주택)자산 40.7%(4,022조원), 일반금융자산 32.1%(3,170조원), 노후대비 금융자산(연금) 27.2%(2,692조원)으로 추정된다.

총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고 일반금융자산은 8.1% 증가한데 비해 노후대비금융자산은 6.2% 증가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 및 2017년 주가지수 상승으로 부동산자산 및 일반금융자산의 증가율이 노후대비금융자산보다 다소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노후대비금융자산 중 가장 큰 증가를 보이는 연금은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확대되고 있는 퇴직연금으로, 2017년 147조원에서 2018년 169조원으로 14.3%가 증가하여 국민연금(9.2% 증가), 개인연금(6.1% 증가)에 비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퇴직연금 가입자 확대로 공적연금만 보유한 여력부족형가구는 6.8%p 감소하고,
3층 연금을 모두 보유한 연금종합형가구는 5.2%p 증가

2017년 조사에서는 공적연금만 보유한 여력부족형의 비중이 27.7%로 가장 높았으나, 퇴직연금 가입자 증가로 여력부족형의 비중이 2018년 20.9%로 6.8%p 감소하였다.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 퇴직연금을 포함한 3층 연금을 모두 보유한 연금종합형의 비중이 2017년 17.2%에서 2018년 22.4%로 5.2%p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공적연금과 퇴직연금만 보유한 관심부족형의 비중도 2017년 17.2%에서 2018년 20.5%로 3.3%p 증가하였다.

특히, 자영업자는 2017년에 여력부족형과 종합지향형이 주요 유형이었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종합지향형과 연금종합형 비중이 크게 상승하면서 공적연금에만 의존하는 비중이 크게 축소되었다.

<한국 가구의 연금보유 5 Type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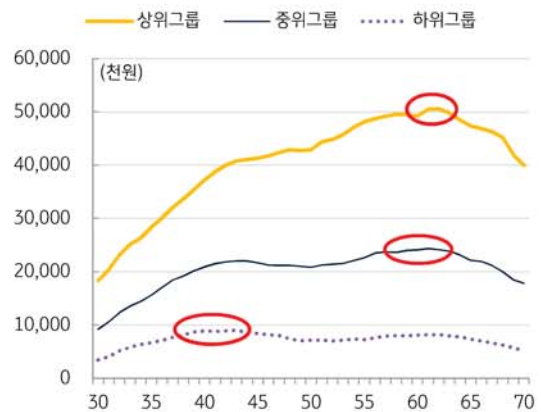
가구의 순자산은 40대 이후 10여년간 감소하다가 50대 후반부터 다시 증가, 다만 순자산 상위그룹은 40대에도 완만히 순자산이 증가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지출과 순자산을 분석한 결과, 가구 순자산은 40대 초반에 고점을 찍은 뒤, 목돈 지출이 많아지는 50대 초반까지 감소하다가, 은퇴 전인 60세 전후까지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순자산 상위 15~35%에 해당하는 가구(상위그룹)는 높은 소득을 바탕으로 목돈 지출이 늘어나는 40대에도 순자산이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순자산 상위 40~60%에 해당하는 가구(중위그룹)는 40대부터 지출이 소득을 상회하면서 순자산이 50대 초반까지 감소하고, 이후 60세 전후까지 40대때 보다 순자산이 약간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소득이 낮은 순자산 상위 65~85%에 해당하는 가구(하위그룹)는 육체적 능력과 숙련도가 가장 좋은 40대에 순자산이 가장 많고, 가계수지 회복 후 정점인 60세 때에도 이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순자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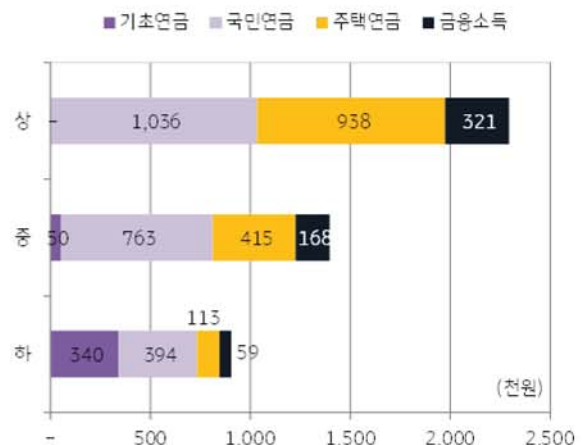


65세 은퇴시 순자산 상위 40% 이상 가구는 최소생활비 이상 확보 가능, 그러나 40% 이하 가구는 최소생활비 확보도 어려운 상황으로 지속적 소득활동 필요

은퇴시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자산을 감안할 경우, 순자산 상위 40%이상 가구는 높은 소득수준으로 국민연금도 많이 받고, 축적된 부동산자산으로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 65세 은퇴시 최소생활비(월184만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순자산 중위그룹은 부동산자산으로 일정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면서 65세 은퇴시 최소생활비 3/4 정도의 노후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위그룹은 최소생활비 충족을 위해서는 월 45만원 정도의 추가소득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순자산 하위그룹은 낮은 소득수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도 적고, 부동산자산이 부족하여 추가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65세 이후에도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소득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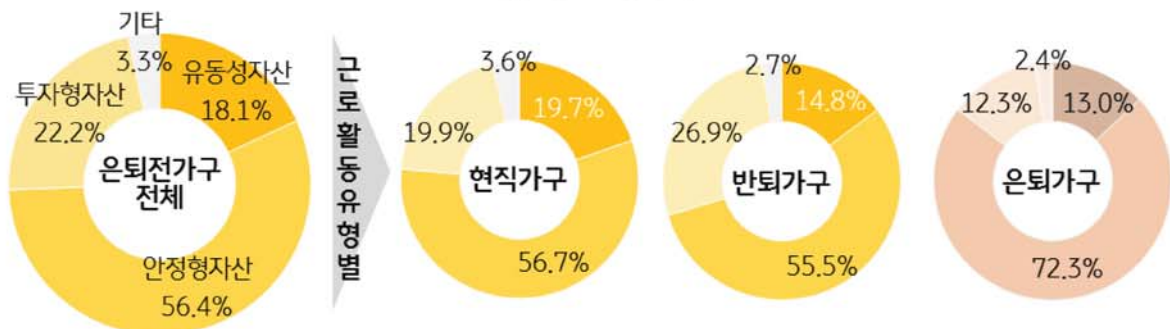
<순자산 그룹별 은퇴시 노후소득>



은퇴전 가구의 금융자산은 8,920만원으로 56.4%가 예적금 등 안정형 상품으로 운영

은퇴전 가구가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은 평균 8,920만원으로, 예적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안정형 금융상품을 보유한 경우가 56.4%로 가장 비중이 크고, 주식이나 펀드 등 투자형 금융상품(22.2%), 요구불예금 등 유동성 금융상품(18.1%)의 순이다. 장기간 종사하던 직장이나 직업에서 퇴직하여 새로운 일자리로 옮긴 상태인 반퇴가구의 경우는 공격적인 경향이 나타나 유동성자산 비중은 감소하고 투자형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금융자산 보유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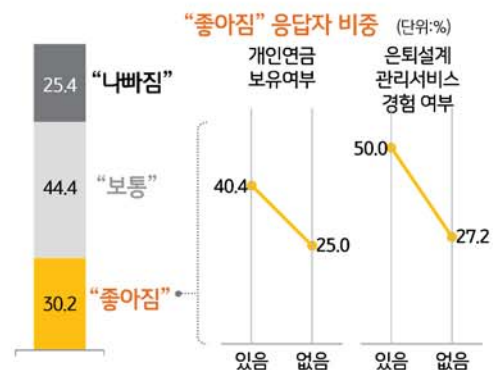
평균 은퇴 희망연령은 64.9세이나, 60대 이상은 5~10년 좀 더 일하고 싶어함 은퇴 대비 활동을 한 경우 생활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져

20대에서 50대까지는 60대 초·중반에 은퇴를 희망하지만, 60대(69.9세), 70대(76.0세)의 은퇴 희망 연령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은퇴 전후 가구의 생활 만족도는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보통 수준이 많으나,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경우, 개인연금을 보유한 경우, 은퇴설계 관리서비스를 경험한 가구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과거보다 생활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은퇴 대비를 한 가구가 경제적 형편이 더 낫기도 하겠지만, 은퇴 설계를 하는 등 자신의 삶을 위한 행동을 취해 왔다는 사실 자체로도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개선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은퇴 희망연령과 은퇴자 실제 은퇴 연령>



<은퇴 가구의 과거대비 현재 생활>



노후 적정생활비의 약 65%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은퇴를 앞둔 50대의 절반 이상이 적정생활비 조달 준비가 미흡

조사 대상자들은 노후에 여가 등을 즐길 수 있는 적정생활비를 고려했을 때 65% 수준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적정생활비의 70% 이상을 조달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40% 미만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적정생활비 조달이 미흡(70% 미만)인 경우가 75%~57%였으며, 60대 이상은 조달 예상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여전히 40% 정도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적정생활비 대비 여전히 부족한 금액은 생활비를 절약하거나 추가적인 소득활동 또는 자산 매각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5명중 1명은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으며, ‘대출로 마련’ 의향은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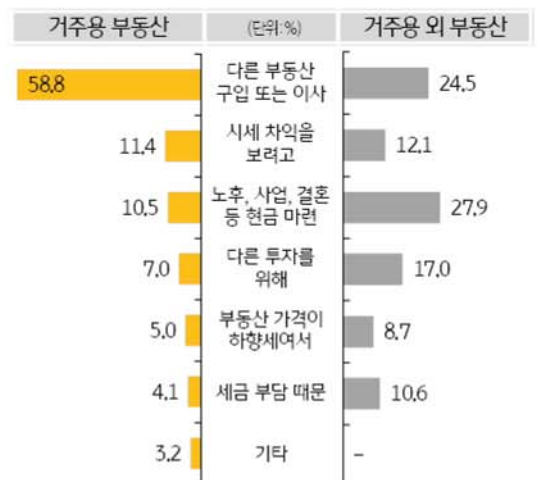
<노후 적정생활비 조달 예상 수준>



노후 자산으로서 부동산 인식은 연령대 및 거주용과 비거주용 구분에 따라 다르며 향후 3년내 17.0%가 거주용, 21.6%가 거주용 외 아파트 매각 의향이 있음

보유자산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한국 가구에 있어 노후 준비를 위한 핵심자산으로서 주거용과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주거용 부동산은 거주지로서 물리적 공간에 대한 특성에 더 주목하고 있는 반면, 거주용 외 부동산은 월세를 통한 현금흐름 창출, 시세차익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향후 3년내 17.0%가 거주용 아파트를, 21.6%가 거주용 외 아파트를 매각할 의사가 있는데, 거주용 부동산은 이사하거나 다른 집을 사려고 매각하는 경우가 60% 가까이 달하나, 거주용 외 부동산은 “노후 등을 위한 현금 마련”, “다른 투자”나 “시세 차익” 등을 위해 매각한다는 동기가 거주용 부동산에 비해 높은 편이다.

<향후 3년내 부동산 매각 의향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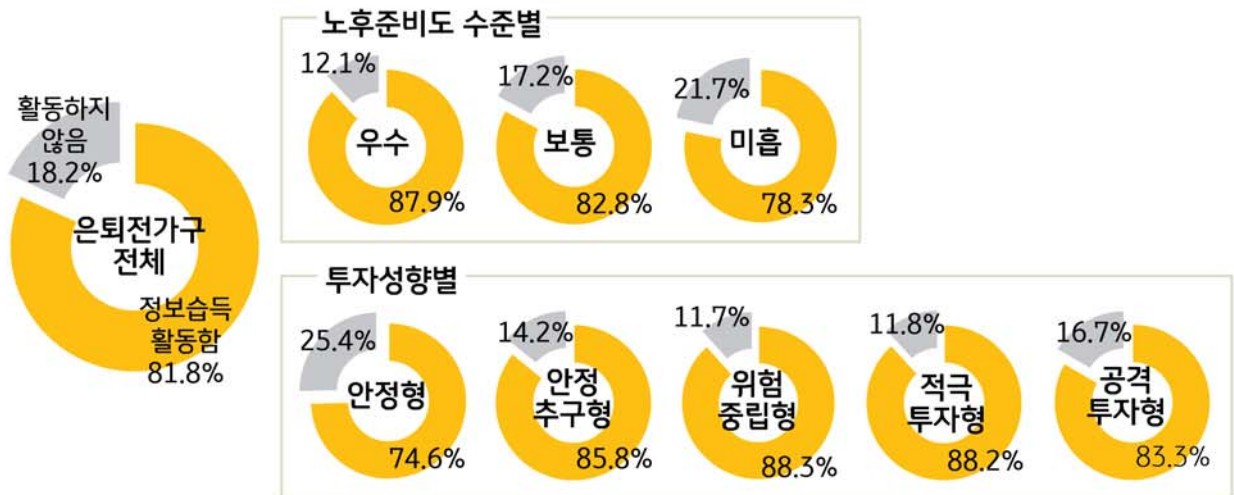


노후자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는 81.8%, 주로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정보 습득, 11.4%만 외부 전문가 도움을 받아 봄

노후자금을 모으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는 은퇴전가구의 81.8%로 높은 수준이다. 노후 자금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채널은 2017년에 ‘직장동료와 지인’, ‘금융회사 직원’ 등 인적 채널 및 TV 등 舊미디어의 역할이 컸으나, 2018년에는 ‘인터넷 정보사이트’를 통해 가장 많이 얻고 있는 등 오프라인 채널의 퇴조와 온라인 채널 이용 활성화가 두드러진다.

반면, 은퇴설계 경험자는 ‘금융회사 직원’을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노후자금 관리에 관심이 높은 은퇴설계 경험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정보를 고르게 활용하고 있다.

< 노후자금관리관련 필요정보 습득활동 여부>



은퇴전가구 중 55.1%가 개인형IRP를 포함하여 개인연금을 보유, 보유하는 주된 이유는 ‘노후자금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

은퇴전가구 중 개인형IRP, 세제적격 및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일시 납 개인연금의 연금상품을 보유한 가구는 55.1%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4.3%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32.6%로 주된 이유로 나타난다.

노후준비도 수준별로 가입 이유에 차이를 보이는데, 노후준비도가 ‘미흡’한 경우는 노후준비도가 ‘우수’하거나 ‘보통’인 경우와 동일하게 노후자금을 마련하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보유한 이유도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 추천이나 권유’(21.8%), ‘금융사 직원의 추천이나 권유’(18.3%)로 가입한 경우도 많은 편이다.(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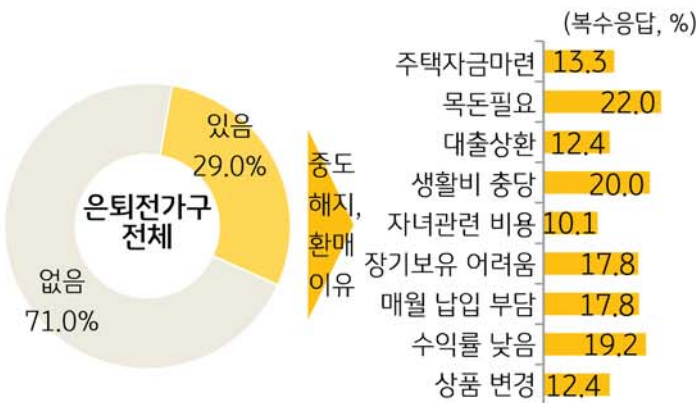
<개인연금 보유 이유>



개인연금상품을 중도해지나 환매한 경우는 1/3정도인 29.0%, 주된 이유는 '목돈마련'이나 '생활비 충당', '낮은 수익률' 때문

개인연금상품을 가입한 후 중도해지나 환매를 한 경우는 은퇴전가구 전체의 1/3정도인 29.0%이며, 주된 이유는 '목돈마련'(22.0%)과 '생활비 충당'(20.0%), '낮은 수익률'(19.2%) 때문이다. 보유 개인상품 중 중도해지나 환매가 가장 많은 상품은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으로 보유자의 27.4%가 중도해지나 환매한 경험이 있다.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장기보유를 통한 세제혜택이 있으나 해지시 위약부담이 적어 다른 개인연금상품에 비해 중도해지/환매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가구특성별로 중도해지/환매율이 높은 상품이 차이가 있는데, 반퇴가구의 경우 현역가구에 비해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의 환매율보다 '일시납 개인연금'의 중도해지/환매율이 높다. 이는 완전은퇴가 멀지 않은 상황으로 세제비적격 개인연금보다 일시납 개인연금의 중도해지/환매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인연금 중도해지/환매 경험 및 이유>



<중도해지/환매한 개인연금상품>



부족한 노후자금을 개인연금으로 충당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35.2%, 지출을 줄이거나 늘어난 소득으로 월 65만원 정도 마련할 의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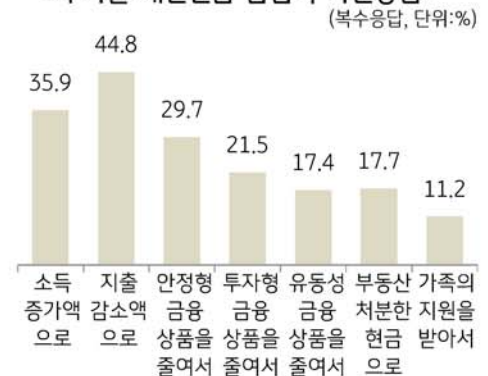
은퇴전 가구가 희망하는 노후 여유생활비 중 현재 자산으로 부족한 자금을 개인연금으로 충당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35.2%만 활용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월평균 65만원 정도의 자금을 충당할 의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추가 납입자금은 지출을 줄이거나 늘어난 소득으로 마련하겠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은퇴설계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경우 개인연금을 활용한 노후부족자금을 충당하려는 의향이 56.3%로 높인데, 이들은 추가 납입할 개인연금액을 충당하는 방법도 '지출 감소액으로' 하는 방법 외에 '투자형 금융상품을 줄여서' 개인연금으로 옮기겠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다.

<노후자금부족분을 개인연금으로 충당할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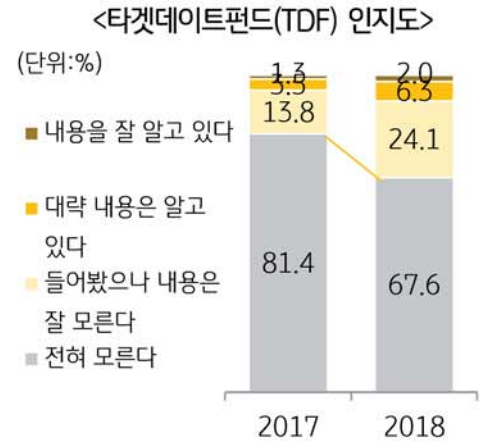
<추가할 개인연금 납입액 마련방법>



타겟데이트펀드(TDF)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32.4%로 전년대비 15.8%p 증가

2016년부터 국내 금융사 출시가 이루어진 연금관련 랩상품인 타겟데이트펀드(TDF)에 대해 들어봤거나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는 32.4%로, 2017년 조사 결과인 18.6%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타겟데이트펀드(TDF)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개선된 경우는 개인연금을 '보유'한 경우나 노후준비도가 '우수'한 경우, 가구 근로활동 유형이 '반퇴 가구'인 경우, 가구 월평균소득 '700만원이상'인 경우가 포함된다. 개인연금이 있는 경우 2017년 21.2%에서 2018년 41.7%로 20.5%p 증가하였고, 노후준비도가 우수한 경우 23.6%에서 55.2%로 21.6%p 증가, 반퇴가구의 경우 12.0%에서 31.5%로 21.5%p 증가하였다.



월지급식 즉시연금은 낮은 인지도에 비해 가입의향은 높은 편이며 가입의향자들은 54세부터 월지급식 즉시연금을 활용하여 현금흐름을 창출할 계획

월지급식 즉시연금을 알고 있는 경우는 조사 대상의 18%에 지나지 않았으나, 가입의향 평균은 3.87점 (7점 기준)으로 나타나 낮은 인지도에 비해 가입의향은 긍정적인 편이다. 특히 20대의 경우 4.06점으로 중간 이상의 가입의향을 보여주는 등, 젊은 세대일수록 월지급식 즉시연금 가입의향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노후 매월 현금흐름을 만들기 위해 월지급식 즉시연금을 활용하더라도, 예치 가능한 금융자산 중 일부만을 넣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향후 목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평생 받는 경우 월지급액이 그리 높지 않아 보여서' '초기에 넣을 금액이 커서' '장기상품의 안정성이 불안해서' 등을 언급하고 있다.

<월지급식 즉시연금상품 인지도, 가입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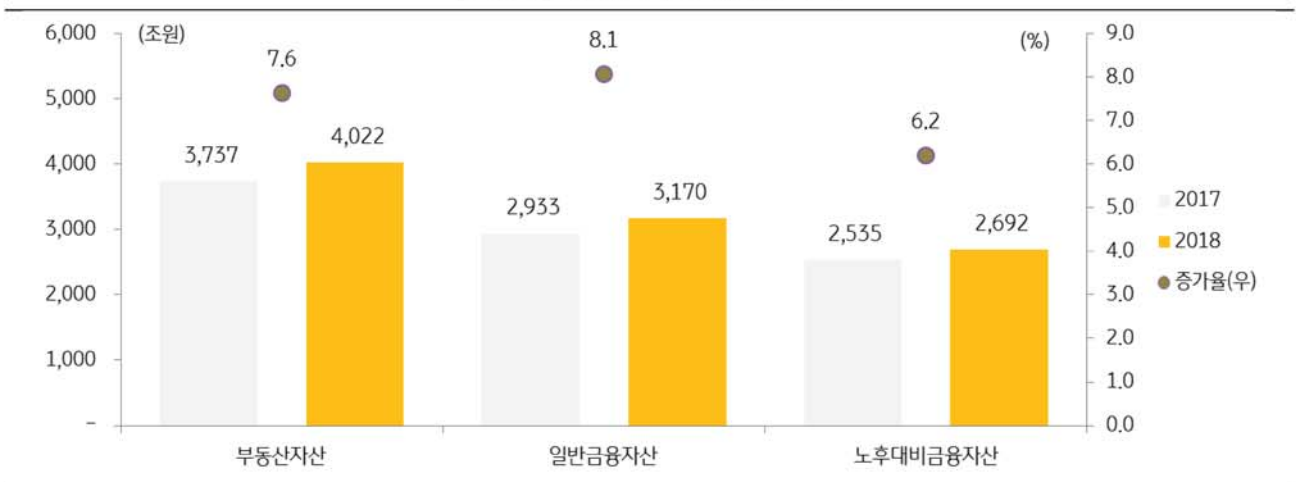


I. 한국 가구의 노후대비 자산

I-1. 한국 가구의 총자산 구성 현황

- 2017년말 기준 한국 가구의 총자산은 9,884조원이며, 부동산(주택)자산 4,022조원(40.7%), 일반금융자산 3,170조원(32.1%), 노후대비금융자산 2,692조원(27.2%)으로 구성
 - 한국 가구의 총자산은 2017년 9,205조원에서 2018년 9,884조원으로 7.4% 증가
 - 부동산자산¹은 전년대비 7.6%, 일반금융자산은 8.1%, 노후대비금융자산²은 6.2% 증가

[그림 1] 한국 가구의 총자산 구성



주: 2017=2016년말, 2018=2017년말 기준. 부채를 제외하지 않은 총자산 기준.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단체 포함.

연금보장액은 추산치로 가정과 계산방식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한국은행, 각종연기금통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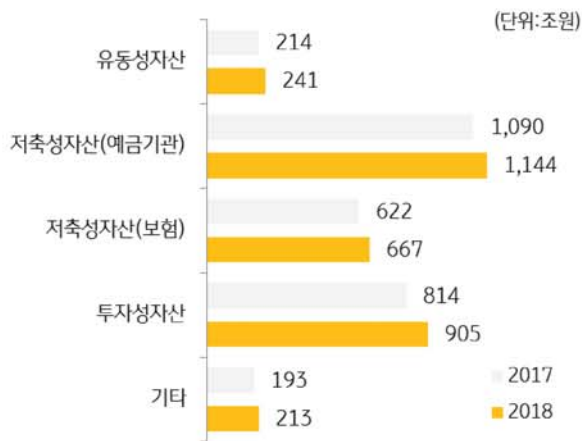
- 연금을 제외한 일반금융자산 중 투자성자산 증가율이 크며, 이는 주가지수 상승의 영향
 -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된 투자성자산은 2017년 814조원에서 2018년 905조원으로 11.1% 증가
 - 주가지수(KOSPI)가 2016년말 2,026에서 2017년말 2,467로 21.8% 상승한 영향
 - 현금, 결제성 예금, CD, RP 등이 포함된 유동성자산은 2017년 214조원에서 2018년 241조원으로 12.7% 증가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자금이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

¹ 극소수 가구가 대부분을 보유하고, 집계가 어려운 토지, 건물 등은 제외

² 노후대비금융자산은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적립금 및 향후 수령액의 현재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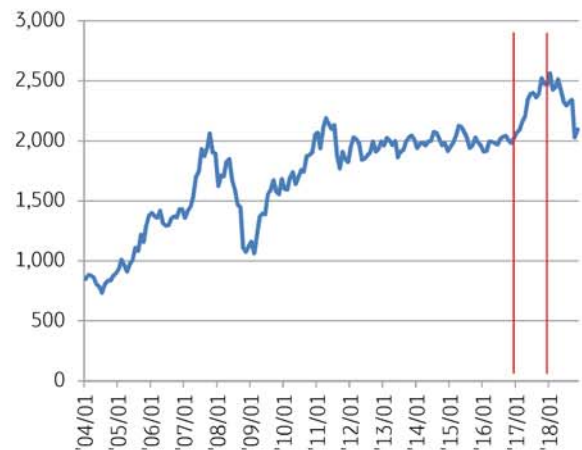
- 각종 예금, 적금 등이 포함된 예금기관 저축성자산은 2017년 1,090조원에서 2018년 1,144조원으로 4.9% 증가
- 저축성보험 등 보험사 저축성자산³은 2017년 622조원에서 2018년 667조원으로 7.2% 증가

[그림 2] 일반금융자산 구성



자료) 한국은행

[그림 3] 주가지수(KOSPI) 추이



자료) 한국은행

■ 노후대비금융자산 중 가장 증가세가 큰 연금은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확대되고 있는 퇴직연금으로, 2017년 147조원에서 2018년 169조원으로 14.3%가 증가

- 2016년말 대비 2017년말 국민연금은 633조원→691조원(9.2% 증가), 퇴직연금은 147조원→168조원(14.3% 증가), 개인연금은 310조원→329조원(6.1% 증가)
 - 퇴직연금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은 16.3%로, 가입자 확대에 따른 빠른 성장세 지속

■ 노후대비금융자산의 80%를 차지하는 공적연금의 증가분 중 53%가 기금으로 적립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짐

- 노후대비금융자산의 60% 정도가 국민연금이고, 20%가 특수직역연금⁴으로 공적연금이 가계 노후대비자산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음
 - 특수직역 종사 가구는 10% 내외로, 가구당 노후대비금융자산이 일반가구대비 더 많음
- 현재 노후대비금융자산 중 공적연금 규모는 2,194조원으로 이중 적립금 33% 수준

³ 자금순환표상 보험 및 연금 준비금에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기금을 제외한 수치

⁴ 특수직역연금은 퇴직연금이 포함된 개념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포함되며, 국민연금대비 납입금과 수령액이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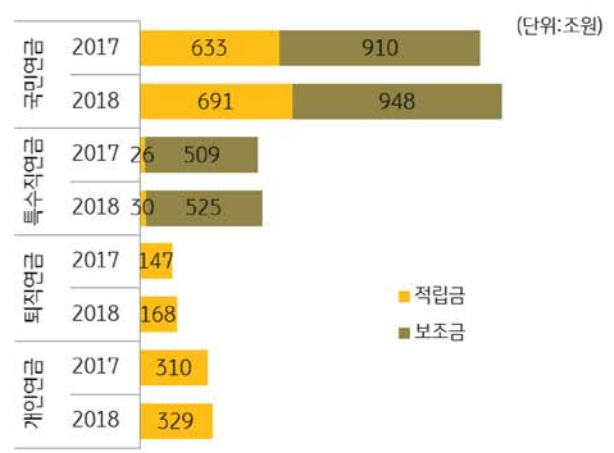
- 노후대비금융자산인 연기금 중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은 수령액 대비 납입금 규모가 작아 장기적으로 국고지원 등의 방법으로 보장액을 확보해야 함

[그림 4] 노후대비금융자산 유형별 증가 추이



자료) 연기금 관련 통계, 금융감독원

[그림 5] 노후대비금융자산 구성(적립금,보조금)



자료) 연기금 관련 통계, 금융감독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1-2. 한국 가구의 5-Type 연금보유 세그멘테이션 현황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3층 구조’ 개념에 기반하여 한국가구의 연금 보유·노후 준비 유형을 5개의 집단으로 구분
 - 가구의 연금 보유 형태에 따라 모든 유형의 연금을 보유한 ‘연금종합형’에서부터 ‘절세지향형’, ‘관심부족형’, ‘종합지향형’, 그리고 공적연금만 보유한 ‘여력부족형’으로 구분
-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퇴직연금 의무화로 ‘연금종합형’과 ‘관심부족형’의 비중 증가
 - 공적연금만 보유한 여력부족형의 비중은 6.8%p 감소하고, 공적연금에 퇴직연금만 추가된 관심부족형은 3.3%p 증가
 - 일부는 추가적인 개인연금 가입으로 ‘절세지향형’이나 ‘연금종합형’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
 - 세제비적격 개인연금만 없는 절세지향형은 전년대비 1.9%p 감소한 반면, 세제비적격 상품을 포함한 대부분 유형의 연금상품을 보유한 ‘연금종합형’이 5.2%p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여줌

[그림 6] 한국 가구의 연금보유 5-Type 비중 변화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연령별로는 20대~40대에서 ‘연금종합형’이 크게 증가하고, ‘여력부족형’은 감소함
 - 각종 절세 상품 가입 목적과 함께 노후대비가 좀 더 빠른 시기에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금종합형의 비중은 20대~40대에서 압도적이며, 50대는 여전히 다른 유형과 유사한 비중

[그림 7] 연령별 연금보유 5 Type 비중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직종별로 보면 자영업자는 ‘여력부족형’에서 ‘종합지향형’과 ‘연금종합형’으로 이동하였으나, 생산·서비스직은 오히려 ‘여력부족형’이 증가
 - 2017년 자영업자 중 여력부족형(44.2%)이 가장 많았으나, 개인연금 가입 증가로 2018년에는 종합지향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화를 보임
 - 개인연금 외에 퇴직연금(IRP)을 보유한 연금종합형도 크게 증가

- 사무직 종사자는 절세지향형이 감소하고 연금종합형이 증가하면서 절세여부와 상관없이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 가입이 증가
- 반면 생산/서비스직에서는 여력부족형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관심부족형과 절세지향형이 감소하였고 연금종합형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그림 8] 직종별 연금보유 5 Type 비중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가구 월소득별로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연금종합형’이 증가하고, ‘여력부족형’이 감소

- 월소득 830만원 이상으로 연소득 1억 이상인 가구를 제외한 다른 가구에서는 ‘관심부족형’도 증가
 - 월 83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다른 소득가구와 달리 ‘종합지향형’ 비중이 증가
- 이들 가구는 개인연금 상품을 보유(연금종합+절세지향+종합지향)한 비중이 81.4%를 차지하고 있는데 월소득 구간이 낮아지면서 이 비중은 각각 72.4%, 66.9%, 50.1%, 30.4%로 감소
 - 가구 소득이 연 6천만원을 상회하는 가구의 2/3 이상이 개인연금 상품을 보유

■ 보유 금융자산 기준으로는 전반적으로 ‘여력부족형’이 감소하는 와중에, 금융자산 중간 규모 가구는 ‘절세지향형’이 감소하였고, 금융자산이 많은 가구는 ‘종합지향형’도 감소

- 금융자산이 적은 가구도 절세에 중점을 둔 ‘연금종합형’ 비중이 상승
- 금융자산이 중간 규모인 가구는 노후 대비 확대로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보유가 증가하면서, 절세지향형 비중이 감소
 - 금융자산이 많은 가구는 종합지향형이 감소했는데, 이는 자영업자 가구 중 퇴직연금을 보유하게 된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그림 9] 가구 월소득별 연금보유 5 Type 비중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그림 10] 가구 금융자산규모별 연금보유 5 Type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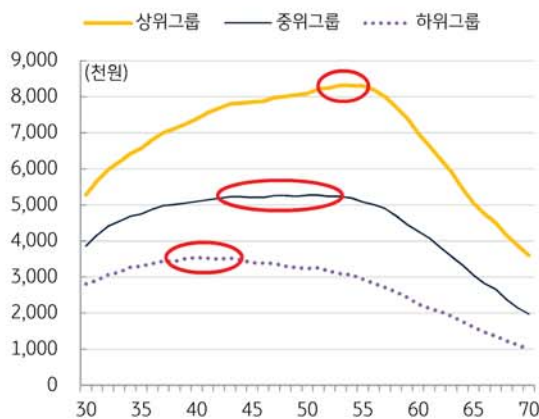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II. 한국 가구의 노후 재무준비 현황

II-1. 가구 소득 및 순자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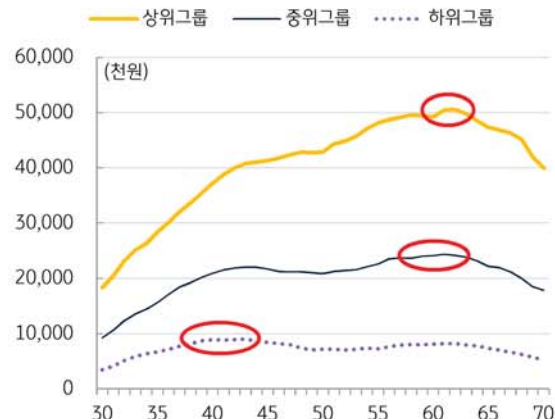
- 가계금융복지조사⁵를 토대로 한국 가구의 소득과 순자산을 분석한 결과, 상위그룹 가구 소득은 50대 중반, 중위그룹은 40대 후반, 하위그룹은 40대 초반에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룹 분류기준] 상위그룹: 상위 15~35%, 중위그룹: 상위 40~60%, 하위그룹: 상위 65~85%
 - 설문조사 대상 한계 및 오차 등을 감안하여 최상위, 최하위 15%를 각각 제외하고, 상위 25%, 50%, 75%를 중심으로 상하위 10%p 범위 안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총 세 개 그룹을 비교
 - 상위그룹의 소득은 50대 중반에 가장 높으며, 55세를 기점으로 이후 가파르게 하락
 - 개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반퇴 등으로 인해 가구 소득이 급감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면서 전체 평균이 빠르게 감소
 - 중위그룹의 소득은 40대 후반 전후로 약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55세 이후로 하락
 - 중위그룹 또한 반퇴 등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하위그룹의 소득은 40대 초반에 가장 높고, 이후 서서히 하락하며 55세부터 하락속도가 약간 가속
 - 40대 초반에 업무 숙련도와 연차가 충분한 수준에 이르며 타연령대에 비해 소득이 높은 편

[그림 10] 연령별 소득 분포



주: 연령별 상위 25%, 50%, 75% 경상소득을 평탄화한 수치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

[그림 11] 연령별 순자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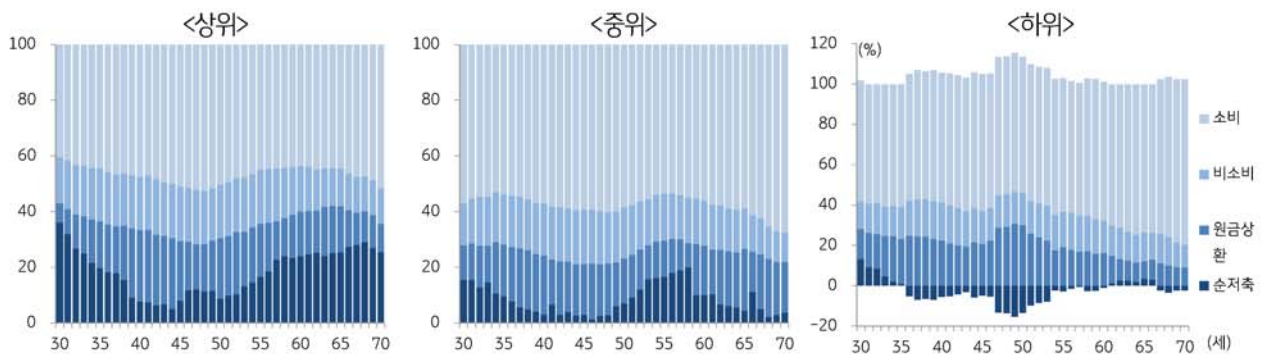


주: 연령별 상위 25%, 50%, 75% 순자산을 평탄화한 수치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

⁵ 통계청(2018), '2017 가계금융복지조사'

- 연령별 순자산 규모는 상위그룹 가구의 경우 60대 초반에, 중위그룹은 60세 전후, 하위 그룹은 40대 초반에 가장 높게 나타남
 - 공통적으로 40대 초반까지 순자산이 증가하다가, 40대 중반부터 50세 후반까지 순자산이 감소하거나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이후 다시 60대 초반까지 순자산이 완만히 증가하다가 63세부터 감소
 - 소득이 가장 높은 40대, 50대에 순자산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이 시기에 가구 지출이 가장 높아 일부 자산을 처분하고 있음을 의미
 - 소득 상위와 중위그룹 가구는 60세 이전에 순자산이 약간 더 증가하면서 생애 최고 수준을 기록
 - 반면 하위그룹 가구는 40대가 정점으로 이후 60세 전후에도 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 소득 중 저축(순저축+부채원금상환) 비중은 상위그룹은 40% 내외, 중위 그룹은 30% 내외, 하위그룹은 20% 내외이며, 40~50대에는 저축의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에 소요됨

[그림 12] 소득그룹별 소득 구성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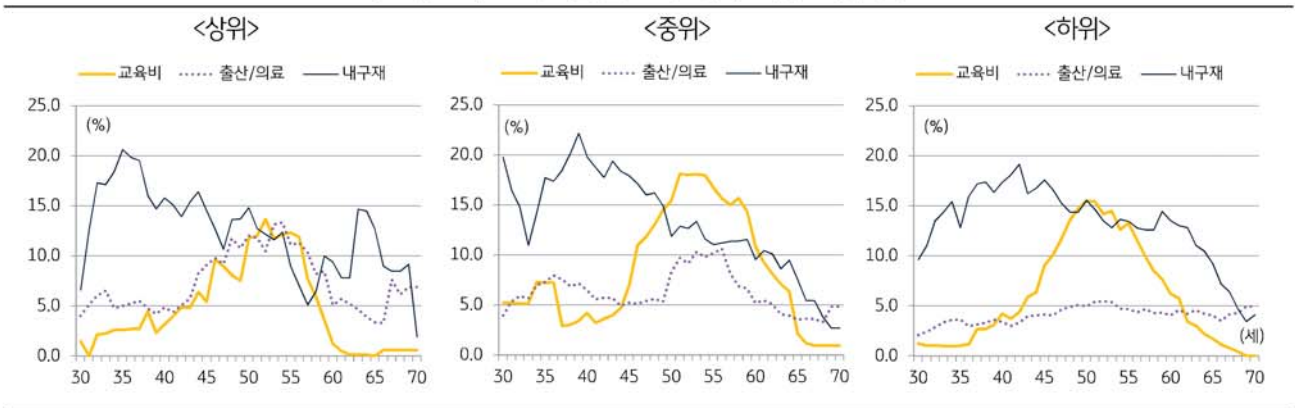


주) 비소비 = 세금, 연금, 기부금 등 / 자료) 가계복지조사(2017)

- 부채원금상환은 순자산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저축의 일종
 -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고 이를 장기간 상환하면, 가입시에 만기자금을 받는 저축과 같다고 볼 수 있음
- 소득 중 소비지출 비중은 40대 후반에 가장 높아지며, 40~50대에 원금상환 비중이 가장 높음
 -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 마련 및 상환이 이 시기에 집중됨을 알 수 있음
- 상위그룹은 40대에도 소득의 10% 가량을 순저축에 할애할 수 있지만, 중위그룹은 5% 미만으로 저축 여력이 극히 부족해짐
- 하위그룹은 30대 후반부터 순저축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어 자산을 축적할 수 없는 상황

- 목돈 지출은 30대에는 내구재, 50대에는 교육비 지출이 높게 나타나며, 상위그룹과 중위그룹에서는 의료비용도 50세를 전후해서 크게 소요됨

[그림 13] 소득그룹별 소득 대비 목돈 지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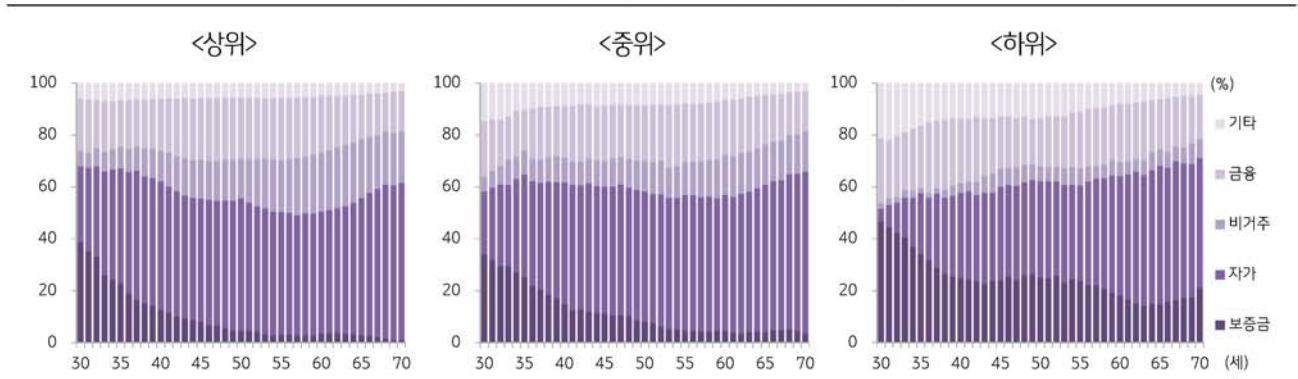


주) 내구재 = 차량, 명품, 가전 등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

- 하위그룹은 소득 대비 목돈 지출 규모가 30대 30% 중반에서 50세 50%까지 육박
 - 그 결과 50세 전후로 순저축이 가장 크게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음
 - 상위그룹은 40%, 중위그룹은 50% 수준에서 횡보하나, 충분한 소득으로 순저축은 플러스 유지
- 내구재 관련 지출은 30대에 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이후 서서히 감소
 - 이는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내구재에 드는 목돈의 부담이 다소 감소되기 때문으로 추정
- 교육비 지출은 50대에 가장 높게 형성
 - 사교육, 유학, 대학등록금 등 50대의 부담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목돈 지출 비중도 상승
- 상위그룹과 중위그룹의 경우 50대 전후로 의료비 지출이 상승
 - 반면 하위그룹은 소득의 5%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질병 치료 외의 목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하기 어렵고, 치료 목적의 지출도 최대한 미루기 때문으로 추정
- 순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평균 20% 수준에 불과한 상태로, 상위그룹은 비거주 부동산 비중이 60세에 20%를 상회하나, 하위그룹은 동일한 연령대에 임대보증금 자산이 20% 이상 남아 있음
 - 가구의 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자산과 임대보증금
 - 거주관련 부동산자산(임대보증금 포함) 비중은 상위그룹은 60대 중반까지 하락세, 중위그룹은 횡보, 하위그룹은 상승세

- 상위그룹은 30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거주용외 부동산자산이 증가
 - 거주용 부동산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금융과 부동산에 고르게 나뉘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위그룹은 비거주 부동산 자산이 40세 10% 수준에서 60세 15% 수준으로 서서히 증가
 - 자산에 여유가 생기거나 투자에 관심이 있는 가구 비중이 나이가 많을수록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위그룹은 50대 후반에도 여전히 상당수의 가구가 전월세 형태로 살고 있음
 - 소득과 자산이 부족하여 자가에 거주할 수 없는 계층에 해당하며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도 자산 규모상 수도권 외 지역이나 아파트 외의 주택에서 주거하는 확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

[그림 14] 소득그룹별 순자산 구성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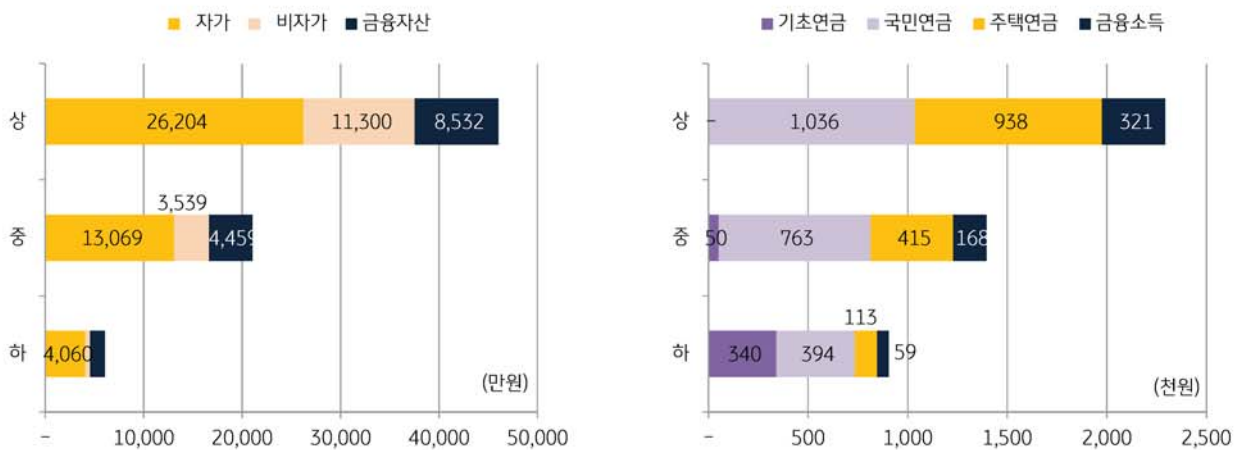
주) 자가 = 거주 자가 주택 - 주택담보대출. 비거주 = 거주 자가 주택외 부동산 - 부동산담보대출. 보증금 = 임대보증금자산 - 전세자금대출
 금융 = 금융자산 - 기타부채. 기타 = 부동산 외 실물자산.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

II-2. 은퇴 시 노후 소득 영향 요인

- 65세 은퇴를 가정할 때 상위그룹은 최소생활비 이상의 노후 소득을 기대할 수 있으나, 중위그룹은 최소생활비의 76%, 하위그룹은 51%만 충족 가능
 - 상위그룹은 65세 순자산이 평균 4.6억원으로 은퇴시 최대 230만원의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음
 - 중위그룹은 65세 순자산이 평균 2.1억원으로 은퇴시 최대 140만원의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음
 - 하위그룹은 65세 순자산이 평균 0.6억원으로 은퇴시 최대 91만원의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음

- 65세 시점의 순자산은 상위그룹이 하위그룹의 7.6배, 중위그룹이 하위그룹의 3.5배이지만, 65세 은퇴시 노후 소득은 상위그룹이 하위그룹의 2.5배, 중위그룹이 하위그룹의 1.5배에 불과
 - 저소득층 지원 목적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면서 소득격차 감소
 - 국민연금 또한 자산재분배 효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 격차를 희석시키는 효과
- 노후 소득은 국민연금이 가장 큰 바탕이 되며, 자산 비중이 높은 주택연금이 나머지 대부분을 메우고, 금융소득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비중을 차지, 하위그룹은 기초노령연금이 많은 부분을 기여

[그림 15] 65세 가구주 자산 규모와 은퇴시 노후 소득 추정



주) 기초연금은 부부 2인 기준. 국민연금은 5세 연령별 25%, 50%, 75% 소득수준 유지 가정. 금융소득은 90세까지 금융자산 원금 소진 가정. 순자산그룹 기준.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

■ 노후 소득의 약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상위그룹 노후 소득의 45%, 중위그룹의 58%, 하위그룹의 81%를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이 부담

- 기초연금은 65세부터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므로 2인 가족일 경우, 최대 50만원의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을 받거나 자산이 많을 경우 감액되거나 받지 못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내 평균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현재 65세 기준 상위그룹은 월 104만원, 중위그룹은 월 76만원, 하위그룹은 월 39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음
 - 현재 65세 기준으로는 은퇴시 상위그룹은 평균 월 104만원, 중위그룹은 월 76만원, 하위그룹은 월 39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음 (가구당 국민연금 평균 보유 1.5건 기준)
 - 납입 상한 금액이 있고, 평균 소득과 자신의 소득의 평균 값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 발생

- 실제로는 국민연금 도입 시기, 가입시기별로 서로 다른 소득대체율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
- 외벌이, 맞벌이 여부, 맞벌이시 각자의 가입 기간 등에 따라서도 가구별 소득에 큰 차이 발생
- 공무원, 군인, 교원 등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납입률이 높은 대신 보장성이 높아서 더 많은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하위그룹은 노후 소득의 거의 대부분(81%)을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에 의존
 - 하위그룹은 노후 최소생활비(184만원)의 40% 가량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충당

[그림 16] 은퇴가구의 기초/국민연금 규모



주) 현재 65세 가구주 기준. 기초연금 2인 수령, 국민연금 15건 수령 가정.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그림 17] 은퇴가구의 주택가격 및 주택연금 추정치



주) 주택연금(전액)은 모든 부동산순자산이 자가라고 가정된 경우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 주택금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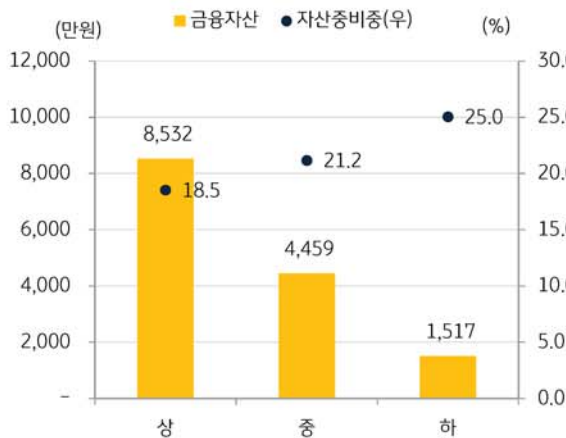
■ 노후소득의 나머지 부분을 메워주는 부동산 자산: 상위~중위그룹에서는 부동산 자산이 노후소득의 30~40% 이상 창출 가능

- 65세 기준 상위그룹의 자가 순자산은 평균 2.6억원, 비자가 부동산 순자산은 평균 1.1억원으로, 자가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월 65만원 확보 가능
 - 비자가 부동산 처분 후, 자가 주택의 부채를 상환하거나 시가가 높은 주변 아파트로 이주할 경우, 최대 월 94만원 확보 가능
- 중위그룹의 자가 순자산은 평균 1.3억원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월 33만원 확보 가능
 - 비자가 부동산 처분 시 월 41만원까지 확보 가능

- 하위그룹의 자가 순자산은 평균 4천만원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월 10만원 확보 가능
 - 하위그룹에는 무주택자도 많기 때문에 월 10만원의 주택연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 유주택자의 경우만 한정하면 주택연금이 월 17만원으로 증가
-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가구의 경우, 자가는 주택연금으로 활용하고, 그 외 부동산은 월세 등 다른 형태의 노후 소득 마련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상위그룹과 중위그룹은 저축 여력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축적된 부동산 순자산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두 그룹간 주택연금 규모를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원인으로 작용
 - 상위그룹의 국민연금은 중위그룹의 1.4배에 불과
- 상위그룹은 부동산 자산을 활용함으로써 은퇴 후 최소생활비를 무리 없이 조달할 수 있으며, 중위그룹은 최소생활비에는 미치지 못함
 - 상위그룹은 국민연금+주택연금(전액) 확보 가능 규모가 월 197만원으로 은퇴 후 최소생활비(184만원) 이상을 부동산 자산만으로 확보할 수 있음
 - 중위그룹은 기초/국민연금+주택연금(전액) 확보 가능 규모가 월 122만원으로 은퇴 후 최소생활비(184만원)의 2/3 정도를 부동산 자산만으로 확보 가능
- 대부분의 가구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자가 주택을 소득화할 필요가 있음
 - 중위그룹이 부동산 자산 중 자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금융자산을 활용해도 은퇴 후 최소생활비의 절반에 불과한 월 98만원에 불과
 - 상위그룹도 자가 주택을 활용하지 않고 금융자산만 활용 시 월 136만원만 확보할 수 있어 최소생활비에 미달
- 중위그룹과 하위그룹은 최소생활비 확보를 위해 은퇴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노동을 지속해야 함
 - 중위그룹은 최소생활비 대비 약 45만원 정도의 소득이 부족
 - 하위그룹은 최소생활비 대비 약 90만원 정도의 소득이 부족
 - 노후 소득 부족은 절반 가량이 70세 이후에 은퇴하는 실질적인 이유에 해당
- **금융자산의 활용은 노후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각종 금융상품, 개인연금은 노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
 - 금융자산은 전체 자산의 20% 내외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후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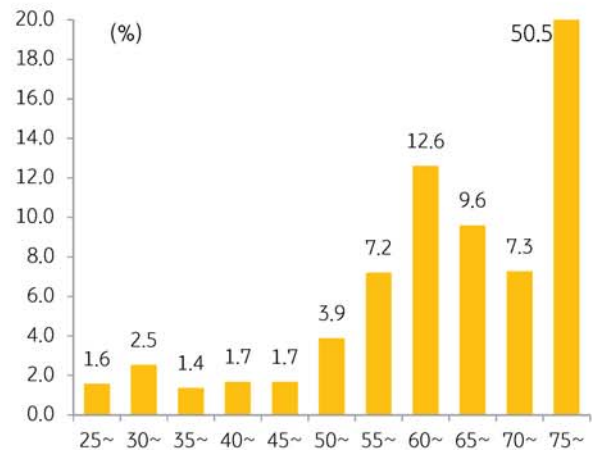
- 금융자산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한계상,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없음
 -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금융상품의 일종인 개인연금으로 기초연금, 공적연금이 다 충당하지 못하는 노후 소득을 채울 수 없음

[그림 18] 은퇴가구의 금융자산 규모



주) 현재 65세 가구주 기준. 부채 제외 순자산 기준.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7)

[그림 19] 은퇴연령 분포 추정



자료) 2017 KB골드라이프보고서

■ 상위그룹은 노후 최소생활비 이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나, 중위 및 하위그룹은 노후 최소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어 은퇴를 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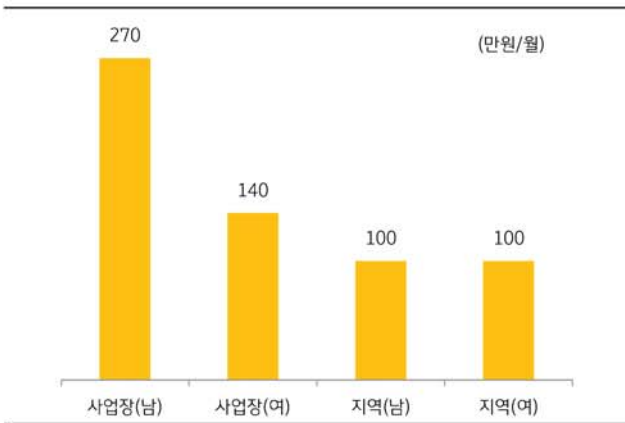
- 국민연금, 부동산 자산으로 상위그룹은 최소생활비 조달 가능
- 가계 자산 중 비중이 작은 금융 자산(개인연금 포함)은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
- 중위그룹과 하위그룹은 은퇴시 최소생활비 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퇴를 미루고 계속 노동을 해야 함
 -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최소 생활비의 절반은 해소해 주기 때문에 노동 부담은 크게 감소
 - 1인 가구는 기초 생활비는 별로 감소하지 않지만 소득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어려움 가중

II-3. 소득 절벽과 금융 자산 활용

■ 50대 후반에 반퇴 시, 근로소득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소득 절벽’을 경험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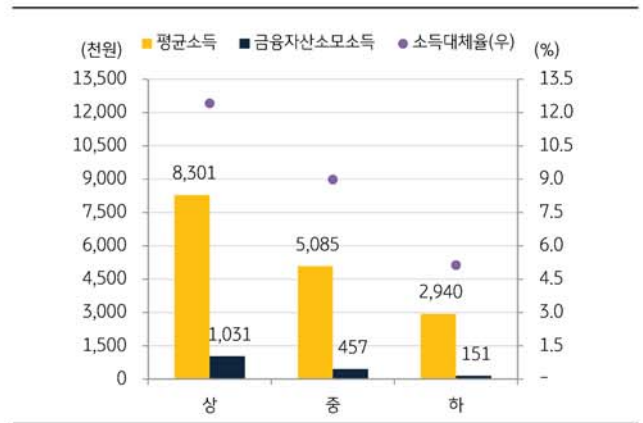
- 반퇴시 소득은 이전에 비해 최대 40% 수준까지도 감소
 - 반퇴시, 이전보다 소득이 낮은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임금근로→자영 간 전환 등으로 소득 마련
 - 55~59세 연령에서 임금근로 대비 자영업자의 소득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65세 이전에 반퇴를 하게 될 경우,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충격 발생
 - 65세 이후는 기초연금+국민연금을 수령하므로 소득 감소 완화/해소 가능
- 국민연금은 현재는 61세부터 수급 가능하므로, 61세 이전에 특히 소득/지출 불균형 심화
 -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61세 이전에는 소득 감소를 온전히 가계 자산을 소모하여 보충하여야 함
- 반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연령은 55세 전후로, 최악의 경우 약 5년 정도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추가로 5년 정도 더 소득이 모자란 상태 지속
 - 목돈 지출은 50대 후반에도 여전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소득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가 심화
 - 60대 초반에도 목돈 지출이 상당부분 지속되는 경우 악화된 재정이 개선되기 어려움

[그림 20] 55~59세 중간소득



주) 사업장은 임금근로자 지역은 자영업자에 해당
 자료) 국민연금통계연보

[그림 21] 금융자산 소진시 소득대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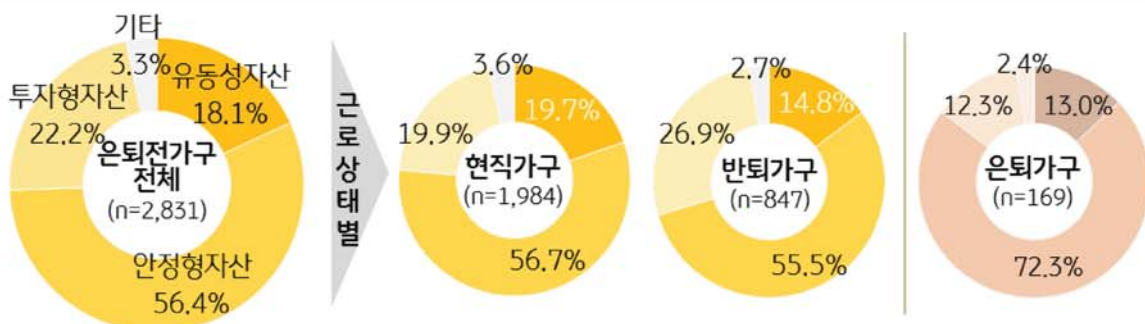
주) 금융자산소모소득 = 55세에 보유한 금융자산을 65세까지 소진할 경우 월소득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7)

■ 금융자산은 전체 노후소득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차지하나, 효율적으로 활용 시 소득 절벽 시기를 건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다수의 자가 주택외 부동산자산은 월세, 반전세 등의 형태로 가계 소득에 기여하면서 소득 창출에 활용될 수 있음

- 반면, 자가 주택은 실제 거주공간으로서의 효용성 및 노후를 대비하는 최후의 수단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해야 함
 -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대다수의 가구들에게 있어서 금융자산만으로 충분한 소득 기여를 기대하기 쉽지 않음
 - 현재 금융소득(배당, 이자 등)만으로 감소된 소득을 채울 수 있으려면 자산 최상위권에 포함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가구의 금융소득 규모로는 소득절벽의 소득-지출 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움
 - 그럼에도 소득 절벽 시기에 소득-지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을 준비하고 활용할 수 밖에 없음
 - 55세 보유한 금융자산을 65세까지 소진할 경우, 상위그룹은 평균소득의 12%, 중위그룹은 9%, 하위그룹은 5%를 대체할 수 있음
 - 맞벌이 중 한명이 반퇴하고, 반퇴 후 소득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경우, 금융자산으로 소득 감소를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소득 절벽 시기에 금융자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노후/은퇴 대비 전략의 한 축이 되어야 함
- 한편 설문 조사 대상 은퇴전 가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평균 8,920만원으로, 이 중 예적금/개인연금의 안정형 자산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은퇴전 가구는 현재 예적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안정형 금융상품을 보유한 경우가 56.4%로 가장 비중이 크고, 주식이나 펀드 등 투자형 금융상품으로 보유한 경우가 22.2%, 요구불예금의 유동성 금융상품으로 보유한 경우가 18.1%임

[그림 22] 현재 금융자산 보유 구성 & 근로상태별 금융자산 보유 구성



주: 유동성 상품에는 요구불/입출금예금, 안정형상품에는 예적금/개인연금, 투자형상품에는 주식/펀드, 기타에는 현금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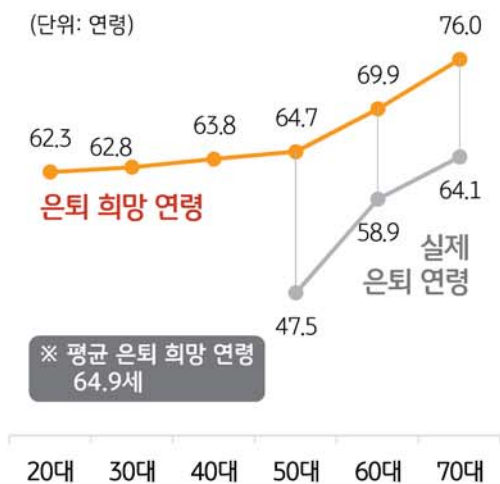
- 은퇴가구는 안정형 자산의 비중이 72.3%로 집중되어있는 상황으로 은퇴전 가구와 금융자산 보유행태의 차이를 나타냄
- 은퇴전 가구 중 장기간 종사하던 직장이나 직업에서 퇴직하여 새로운 일자리로 옮긴 상태인 반퇴가구의 경우는 금융자산 보유행태가 공격적인 경향이 나타나 유동성 자산 비중은 감소하고 투자형 자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음

III. 한국 가구의 노후·은퇴 인식과 태도

III-1. 노후·은퇴에 대한 인식과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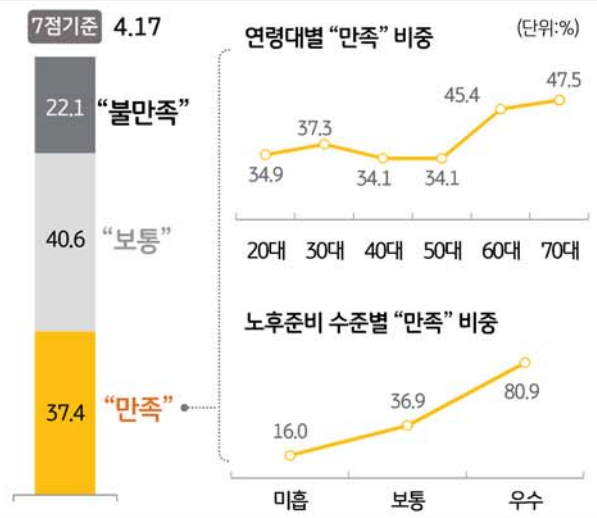
- 은퇴를 아직 하지 않은 가구의 은퇴 희망연령은 64.9세이며, 은퇴가 좀 더 다가온 60대 이상은 이보다 5~10년 정도 더 늦은 시점에 은퇴를 바라고 있음
 - 20대에서 50대까지는 60대 초·중반에 은퇴를 희망하나, 60대(69.9세), 70대(76.0세)의 은퇴 희망 연령은 급격하게 상승하는 등, 은퇴 시점을 좀 더 늦추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가구의 생활 전반 만족도는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나, 노후준비 수준이 높을 수록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급상승하는 경향
 - 경제적 측면·인간관계·여가생활 등을 종합한 생활 전반 만족도는 30대가 소폭 높은 것을 제외하면 20~50대까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60대와 70대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노후준비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경우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도 매우 낮은 편이나,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무려 80.9%가 생활에 만족감을 표시
- 은퇴가구 중 은퇴 대비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현재 생활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남

[그림 23] 은퇴 희망연령과 은퇴자 실제 은퇴연령



주) n=2512, 본인 은퇴자 n=331

[그림 24] 현재 생활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



주) 전체 n=3000

- 은퇴가구 전체적으로는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 생활이 크게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은 편
- 반면 개인연금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가구의 40%, 은퇴설계 관리서비스를 경험한 은퇴가구의 절반이 현재 생활이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고 응답
 - 은퇴 대비를 한 가구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상황 등에 있어서 더 형편이 나은 경우가 많겠지만, 연금을 쌓고 은퇴 설계를 하는 등 자신의 삶을 위한 행동을 취해 왔다는 사실 자체로도 어느 정도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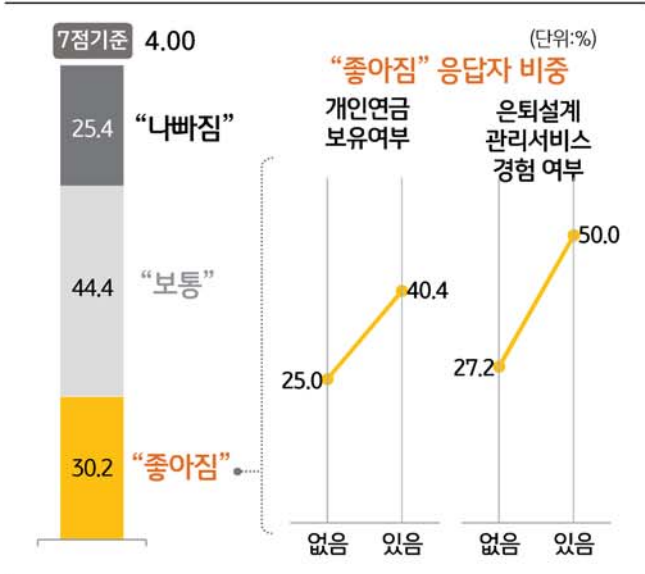
■ **현직가구와 은퇴가구는 노후 생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소폭 많으나, 반퇴가구는 현재 생활 만족도 및 은퇴 후 생활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약간 높은 편**

- 반퇴가구는 반퇴 전 대비 현재 생활이 나빠졌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새로운 일을 찾으면서 겪은 어려움들이 낮은 만족도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여전히 전반적으로는 소폭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기는 하나, 일부 반퇴가구는 완전 은퇴 후 생활이 오히려 현재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함

■ **행복한 노후를 위한 조건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건강’과 ‘경제적 여유’의 순으로 꼽았으나, 세부적으로는 가족·지인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등 소폭의 변화가 감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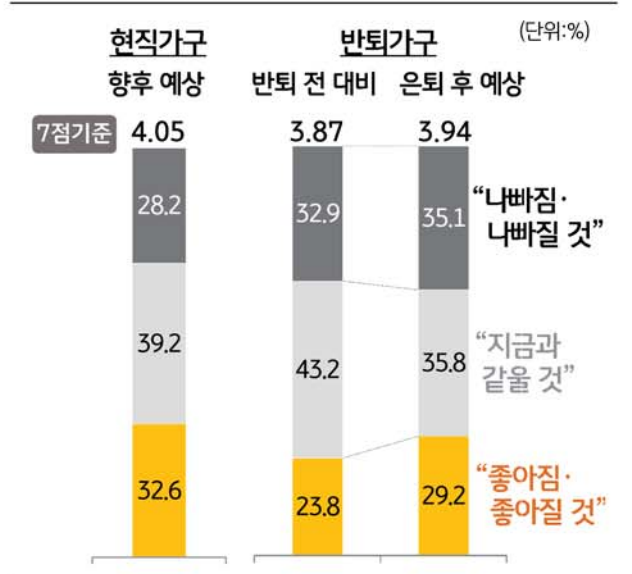
- 2017년과 비교하면 다른 항목들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경제적 여유(“돈”)의 중요성이 소폭 감소(-1.9%p)하고, 가족·지인관계에 대한 중요도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증가함

[그림 25] 은퇴가구의 과거 대비 현재 생활



주) n=169

[그림 26] 현직 가구와 반퇴가구의 은퇴후 생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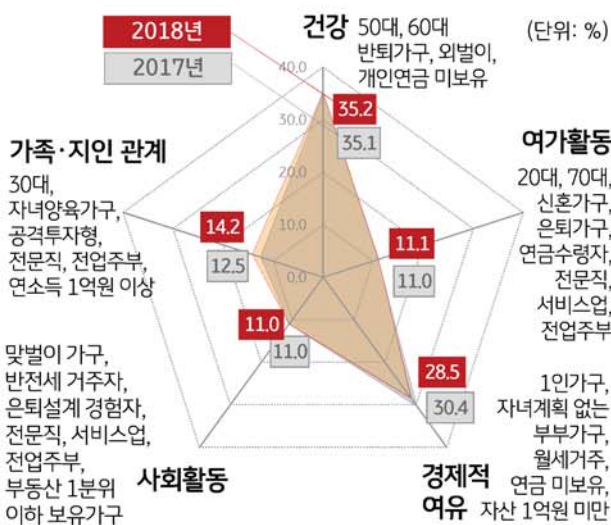
주) 현직가구 n=1984, 반퇴가구 n=847

- 50대와 60대는 건강에 대해 평균보다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으며, 20대와 70대는 여가활동을 중시하며, 30대는 가족·지인관계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여유 및 건강, 여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정도는 22%만이 잘 준비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준비가 부족하다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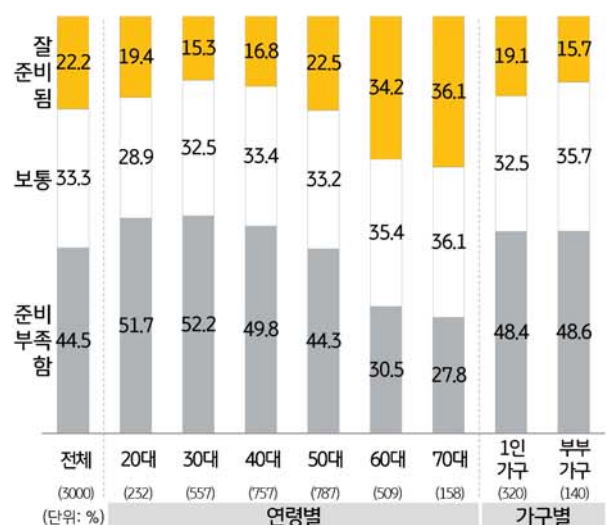
- 20~40대 및 1인가구와 부부가구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50% 수준에 달함
 - 반면 60대 이상은 70% 정도가 종합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되었거나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

[그림 27] 행복한 노후를 위한 요소별 중요도



주) n=3000, 각 항목별 평균 이상의 중요도를 나타낸 그룹

[그림 28] 종합적인 노후 준비 정도(연령대, 가구별)



주) 전체 n=3000

III-2. 노후·은퇴 시기의 경제생활

■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못한 경우가 절반을 넘고 있으며, 준비를 시작하는 평균 연령은 약 4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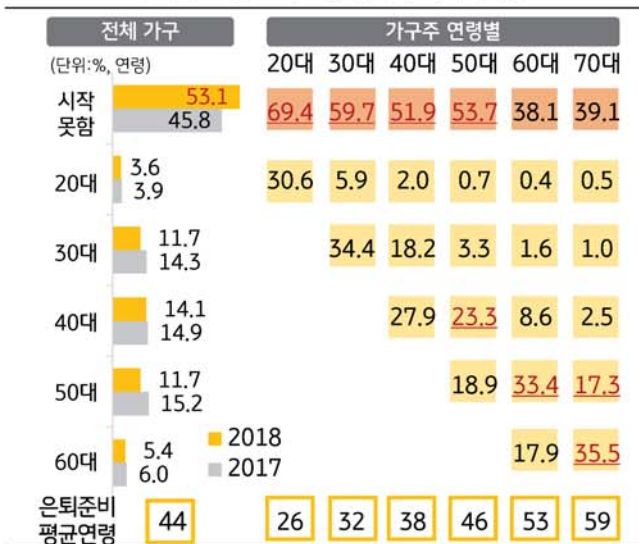
- 가구주 연령 기준 20대~50대까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가 절반을 넘고 있으며, 본격 은퇴 시점인 60대와 70대도 40%에 가까운 가구가 준비를 시작하지 못함
 - 현재 50대 가구주는 노후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53.7%)가 40대 가구주의 경우(51.9%)보다 오히려 소폭 높게 나타남
 - 현재 30대 가구주는 40% 이상이 준비를 하고 있으며 시작 나이도 평균 32세로 나타나, 젊은 세대의 은퇴 준비 시작 시점이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전년도 조사에 비해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특히 50대와 30대의 전년도 대비 감소폭이 큰 편

■ 은퇴 후 자금은 기본적으로 ‘연금(국민연금 포함)’외에 ‘소일거리’를 찾거나 ‘예적금’ ‘보험상품’ 등을 활용할 예정

- ‘소일거리’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은 1인가구 및 부부가구에서 두드러지며, 부부가구는 ‘예적금’, 은퇴후 가구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소득원으로 이용하겠다는 의견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보유율이 낮은 편인 1인가구와 부부가구는 부동산을 활용하여 자금원으로 삼겠다는 의견이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

[그림 29] 노후 경제준비 시작 연령



주) n=3000

[그림 30] 은퇴 후 자금 출처 예상

	(단위: %)	은퇴후 가구	부부가구	1인가구
연금 (국민/개인연금)	95.1	88.8	93.4	92.0
소일거리	50.4	34.9	52.2	54.3
예적금	49.4	40.2	53.6	48.5
보험상품	30.1	18.3	28.2	27.7
정부/가족 지원	24.5	35.5	29.5	29.3
투자상품 (주식, 펀드)	24.0	14.2	19.1	24.4
부동산 임대 소득	22.2	26.0	19.8	19.9
주택연금	12.4	7.7	13.2	11.1
부동산 매각 자금	9.3	3.6	7.7	8.2

주) n=3000 은퇴후가구 n=169, 부부가구 n=713, 1인가구 n=549

■ 노후의 경제적 준비에서 어려운 점으로는 절대 다수가 ‘경제적 여력 부족’을 말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사고 등 ‘미래에 대한 우려’나 ‘경제적 불확실성’ 등도 장애요인으로 거론됨

- ‘경제적 여력 부족’은 월소득 830만원(연간 1억원) 이상을 제외한 전 가구, 특히 월소득 300·500만원 미만 가구의 60% 이상이 노후준비의 주요 장애물로 지적
 - 이 외에 월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는 ‘소비지출 관리 실패’를 언급한 경우가, 월소득 830만원 이상 가구는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지정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 ‘지출부담(부채, 주택, 결혼 등)’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어려움도 커져 월 소득 830만원 미만 가구에 서 절정에 달함

- 이는 일정 소득 구간까지는 소득 증가와 함께 소비 규모도 증가하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 마련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게 된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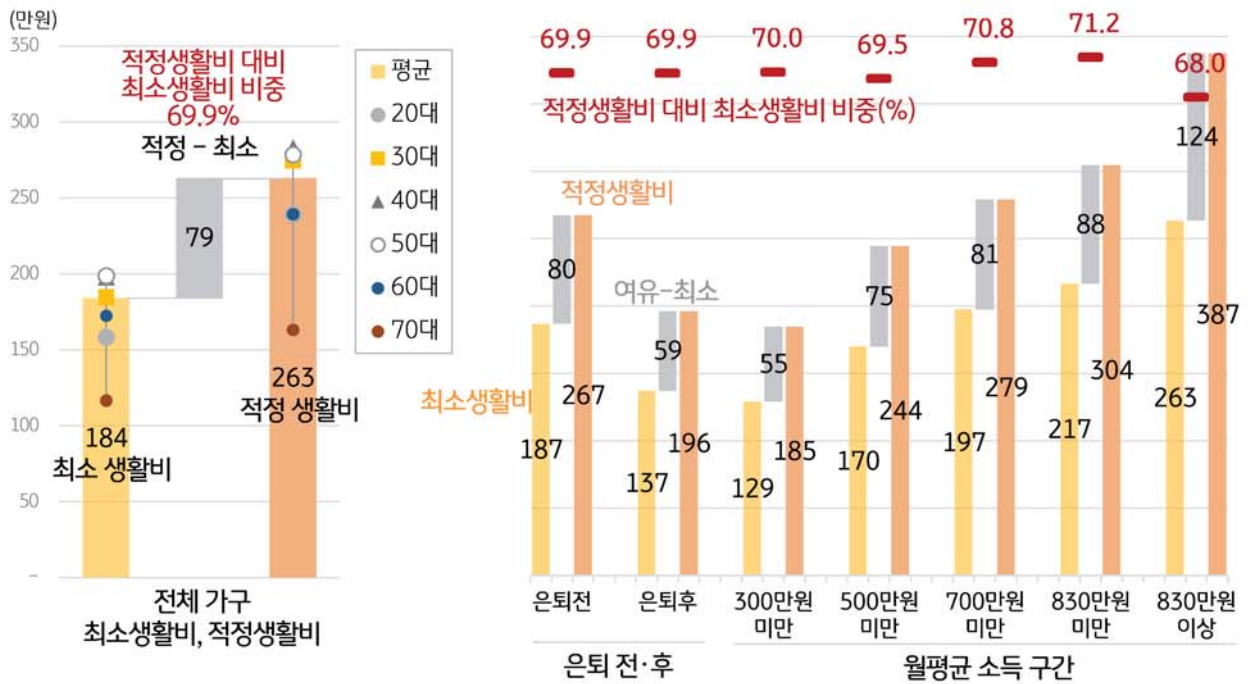
[그림 31] 노후의 경제적 준비에 어려운 점 (전체, 소득별)

(단위: %)	1순위	1+2+3순위	3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700만원 미만	830만원 미만	830만원 이상
정보/상품 부족	15.2	40.2	37.0	35.0	43.6	46.0	46.2
은퇴 재정설계 정보/지식 부족	6.9	22.8	20.4	20.1	24.0	28.0	26.1
은퇴 최적화된 금융상품 부족	4.7	16.0	12.9	14.0	18.4	18.0	19.5
관련 전문가 조언 부족	3.6	9.9	9.5	8.4	10.4	11.1	12.6
미래에 대한 우려, 시간 부족	18.3	55.5	53.0	56.8	55.3	54.8	57.9
예기치 못한 사고 가능성	14.6	44.3	42.1	47.4	42.4	43.5	45.6
시간 부족	3.7	14.4	14.7	13.0	15.4	14.1	15.4
경제적 여력 부족	62.5	88.7	87.7	91.5	90.5	86.4	81.1
소득 부족	30.5	58.2	64.6	66.0	55.7	49.6	39.6
경제 불확실성/물가상승	17.4	47.1	48.0	48.1	46.6	42.7	49.1
지출부담(부채, 주택, 결혼 등)	9.7	33.4	23.9	33.8	38.5	40.7	30.5
소비지출 관리 실패	4.9	15.9	17.5	17.0	14.6	15.8	12.9
노후준비 하지 않음	공적연금 충분	2.3	1.9	1.5	2.0	2.8	5.7
	나중에 준비 예정	1.9	1.4	1.5	1.5	2.5	4.1
	할 필요 없음	1.8	1.9	1.4	1.4	2.5	2.8

주) n=3000, 월소득 300만원 미만 n=641, 500만원 n=879, 700만원 n=801, 830만원 미만 n=361, 830만원 이상 n=318,

- 노후에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생활비는 평균 184만원, 여가 등을 즐길 수 있는 적정생활비는 평균 263만원로 생각하고 있으나, 연령대별 차이가 큰 편
 - 최소 및 적정생활비 예상은 은퇴 전·후 및 현재 월평균 소득에 따라 차이가 크며, 적정생활비와 최소생활비 간의 격차 또한 개별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
 - 현직 세대인 30대~50대는 최소 및 적정생활비 모두 높게 예상하고 있는 반면, 20대와 60대는 이보다는 낮게 책정하고 있으며, 은퇴 세대인 70대는 훨씬 낮은 수준의 금액대를 응답함
 - 2017년 조사와 최소생활비를 비교해 보면 은퇴 전 가구의 금액은 증가한 반면(2017년 177만원, 2018년 187만원), 은퇴 후 가구의 금액은 오히려 감소함(2017년 172만원, 2018년 137만원)
 - 적정생활비에서 최소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9.9%로, 소득 구간이나 은퇴 전·후 집단 간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그림 32] 노후의 최소생활비와 적정생활비 (은퇴 전·후, 연령별, 소득구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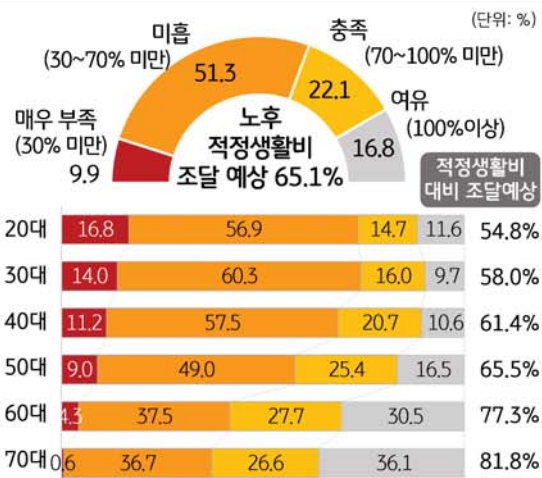


주) 은퇴전 n=2831, 은퇴후 n=169, 월소득 300만원 미만 n=641, 500만원 n=879, 700만원 n=801, 830만원 미만 n=361, 830만원 초과 n=318,

■ 적정생활비를 고려했을 때 65.1% 수준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은퇴를 앞둔 50대조차도 절반 이상이 적정생활비 조달에 미흡할 듯 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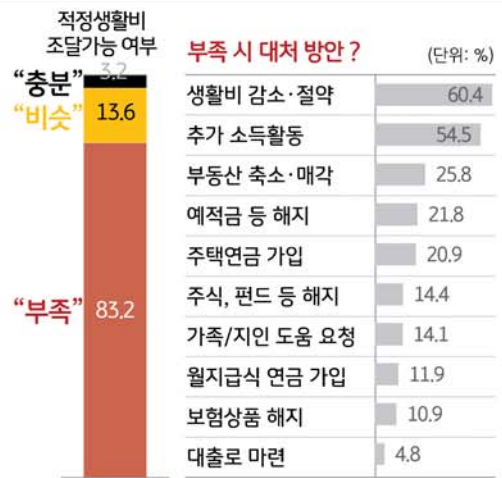
- 전체의 40% 미만의 응답자가 적정생활비의 70% 이상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100% 이상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경우는 16.8%에 불과

[그림 33] 적정생활비 조달 예상 정도 (연령대별)



주) n=3000

[그림 34] 적정생활비 부족 시 대응책



주) 적정생활비 조달가능금액 부족자 n=2497, 3가지 항목 선택

- 50대 이하 연령대의 적정생활비 조달 예상은 54%~65% 정도로 미흡한 수준(70% 미만)에 머물렀으며, 60대 이상은 평균 조달 예상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여전히 이들 가운데 40% 정도는 적정생활비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노후를 위해 준비한 기본적인 자금이나 국민연금 등을 사용하고도 여전히 부족한 금액은 생활비를 절약하거나 추가적인 소득활동 또는 자산 매각 등으로 대응할 예정

-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견은 20.9%이며, ‘대출로 마련’ 의향은 상대적으로 소수

III-3. 노후·은퇴 준비 행동 및 정보 습득

■ 최근 1년 이내 은퇴 준비를 위한 행동들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문가의 조언이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 적극적 행동에 나서는 비중은 높지 않은 편

- 30~40대는 인터넷, 50~60대는 주변과 상의하는 등 기초적 관심 수준의 행동 비중이 비교적 높으며, 현재 수준의 진단 등 은퇴 설계를 위한 출발단계의 행동을 취한 비율도 18% 정도에 불과

- 각 연령대에서 하는 비교적 구체적인 은퇴 준비 행동들로는 30대는 금융상품 가입, 50대는 은퇴 후 필요자금 계산, 60대는 불필요한 생활자금 조정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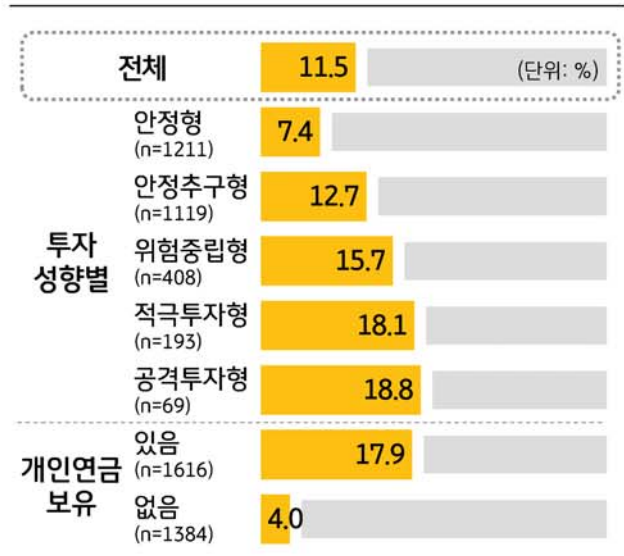
■ 은퇴설계 상담 이용자는 전체의 11.5% 수준으로, 공격·적극투자형 및 개인연금 보유자는 은퇴설계 서비스를 경험한 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림 35] 최근 1년내 은퇴준비/자금관리를 위한 행동

구체적 행동	주변과 상의·검색 (단위: %)	30대	40대	50대	60대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	39.5	42.2	39.6
인터넷 자료 검색	33.3	38.6	38.3	35.6	23.4
불필요한 생활자금 조정	32.0	27.1	33.0	30.6	38.7
가족 지인과 은퇴후생활 상의	26.7	23.0	21.3	28.6	35.4
은퇴 후 필요자금 계산	25.2	21.9	21.5	31.0	27.9
현재 준비 수준 평가/진단	18.7	17.2	18.4	19.3	19.4
은행 등 금융전문가의 조언	13.9	13.5	12.5	14.0	15.9
은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7.5	6.8	7.3	6.7	7.7
없음/기타	3.0	2.5	3.8	3.9	2.4

주) 복수응답, 30대 n=557, 40대 n=757, 50대 n=787, 60대 n=509

[그림 36] 은퇴설계·상담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



주) 전체 n=3000

- 개인연금이 없거나 투자성향 ‘안정형’은 은퇴설계·상담경험이 매우 낮은 편이나, 투자성향 ‘적극’ 또는 ‘공격투자형’이나 개인연금을 보유한 경우는 약 18%가 은퇴설계를 받아본 경험이 있음
 - 이는 실제 해당 응답자들이 은퇴설계에 대한 관심이 더 많기도 하겠지만, 실무적으로 상당수의 은퇴설계가 관련 상품 가입시기 전후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
- 연령대 별로는 20~30대가 은퇴설계/상담 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으나, 20대의 경우 자금 여력 부족, 노후까지의 시간적 여유 등의 사유로 적극적 정보수집 등 지속적 노후자산관리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가구 월소득별로는 ‘월 700만원이상’의 경우 ‘700만원미만’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나, 아직 15~16%대 수준으로, 향후 서비스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월평균소득 ‘700만원~830만원미만’의 경우 15.7%가 상담을 받아 보았고, 연 1억원이상인 월 평균소득 ‘830만원이상’인 경우는 16.7%로 소득이 많을수록 소폭 증가

[표 1] 은퇴전 가구의 노후재무설계 상담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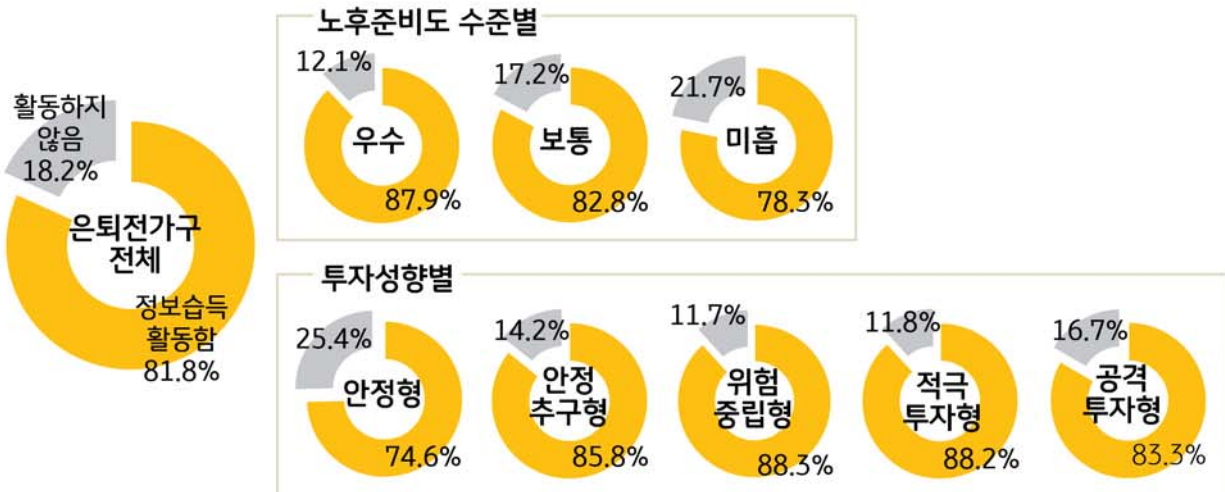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연령대별						가구 월평균소득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300만원 미만	~500만원미만	~700만원미만	~830만원미만	830만원 이상
(n)	(2,831)	(226)	(557)	(748)	(768)	(432)	(100)	(534)	(843)	(785)	(357)	(312)
있다	11.4	<u>15.0</u>	<u>14.4</u>	12.2	9.6	9.0	4.0	6.2	10.1	12.2	<u>15.7</u>	<u>16.7</u>
없다	88.6	85.0	85.6	87.8	90.4	91.0	96.0	93.8	89.9	87.8	84.3	83.3

주: 70대는 70세~74세

- 상담을 통한 자산관리가 필요한 월평균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와 ‘300만원~500만원미만’ 가구는 경험이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
- 노후자금 관리에 필요한 정보 습득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은퇴전가구의 81.8%가 ‘정보습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노후자금관리가 필요한 ‘노후준비도가 미흡한 가구’나 ‘투자성향이 안정형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정보습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노후준비도 수준이 ‘우수’한 가구는 12.1%만 노후자금관리를 위한 정보습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나, 노후준비도 수준이 ‘미흡’한 가구는 21.7%가 정보습득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후준비도가 미흡한 경우 적극적인 노후자금투자·관리로 자금확보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습득활동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 개선 노력이 필요
- 투자성향별로는 ‘안정형’인 경우 25.4%가 정보습득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비중이 높고, 그 외 투자성향별로는 10%대의 평균 정도 수준

- 안정추구형의 경우 14.2%가 정보습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위험중립형은 11.7%, 적극투자형은 11.8%, 공격투자형은 16.7%가 정보습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

[그림 37] 은퇴전가구의 노후자금관리관련 필요정보 습득활동여부



주) 은퇴전가구 전체 n=2,831, 노후준비도 수준별 우수 n=158, 보통 n=946, 미흡 n=1,297, 투자성향별 안정형 n=1,134, 안정추구형 n=1,051, 위험중립형 n=393, 적극투자형 n=187, 공격투자형 n=66

- 노후자금 관리 정보는 2017년과 달리 ‘인터넷 정보사이트’를 통해 가장 많이 얻고 있는 등 오프라인 채널의 퇴조와 온라인 채널 이용 활성화가 두드러짐
 - 2017년에는 노후자금 관리 정보 채널로서 ‘직장동료와 지인’ ‘금융회사 직원’ 등 인적 채널 및 TV 등 舊 미디어의 역할이 컸음
 - 인터넷 정보사이트는 은퇴설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응답자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 노후자금 관리 정보 보급을 위한 초기 단계로서 인터넷 정보사이트의 중요성에 주목
 - 2018년에는 인터넷 정보사이트 외에도 금융사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습득도 소폭 증가하면서 모바일화로 인해 노후 은퇴 정보 제공 방식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줌
- 반면, 은퇴설계 경험자는 ‘금융회사 직원’을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노후자금 관리에 관심이 높은 은퇴설계 경험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정보를 고르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후자금 관리를 위해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는 ‘은퇴·노후설계’, ‘금융상품 정보’, ‘절세 정보’, ‘금융시장 정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은퇴 전·후로 구분해 볼 때 은퇴 전 가구는 자산 포트폴리오 설계·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은퇴 후 가구는 절세 정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그림 38] 노후자금 관리 정보 획득 경로

(단위: %)	2018년		은퇴설계 경험자	은퇴설계 미경험자
	2018년	2017년		
인터넷 정보사이트	30.9	27.5	24.1	31.8
직장동료 친구 지인	27.1	36.1	28.8	26.9
TV 신문 잡지	25.0	31.8	19.5	25.8
노후은퇴 재테크 사이트	23.5	23.7	28.5	22.9
은행/증권 직원, 보험설계사	18.6	28.5	36.3	16.3
금융회사 홈페이지	9.3	5.4	12.8	8.8
금융사 홍보물(팸플렛, 이메일)	7.6	6.7	11.6	7.1
직장 내 교육	5.5	5.4	11.3	4.7
사회단체 연구소 정부기관	4.0	4.3	7.0	3.6
정보를 얻고 있지 않음	18.9	14.9	4.4	20.8

주) 전체 n=3000, 은퇴설계 경험자 n=344, 은퇴설계 미경험자 n=2656

[그림 39] 노후자금 관리를 위해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단위: %)	1+2+3순위		은퇴전 가구	은퇴후 가구
	1순위	2+3순위		
은퇴/노후 설계	24.0	49.4	49.7	44.4
금융상품 정보	22.1	48.1	48.1	46.7
절세 정보	14.8	34.1	33.6	41.4
금융시장/경제 전망 정보	10.0	28.3	28.3	29.0
자산 포트폴리오 설계/조정	9.2	26.8	27.4	16.6
국내외 부동산 정보	8.5	23.7	23.8	21.9
세무·법률 자문	5.3	14.7	14.7	14.8
금·예술품 관련 시세	2.4	6.9	6.8	9.5
해외투자 및 컨설팅	2.5	6.4	6.5	5.3

주) 전체 n=3000, 은퇴 전 가구 n=2831, 은퇴 후 가구 n=169

IV.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핵심자산 인식 및 관리 현황

IV-1. 부동산 관련 인식

- 설문 대상자의 약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아파트가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 유형임이 재확인되고 있으나, 연령대에 따라서 거주 주택 유형은 일부 차이를 보임
 - 20대의 경우 57.3%만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연립/다세대 및 원룸·오피스텔에도 11.6%가 거주하고 있으며, 60·70대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
-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구입자금은 76.6%는 본인 자금, 17.1%는 대출을 활용, 주거용 외 주택 구입 시 본인 자금 사용율은 주거용보다 약 10%p 낮은 편
 - 20대와 30대는 주거용 주택 구입 시 대출 및 가족지원 등을 활용하는 비중이 평균보다 높음
 - 주거용 외 주택 구입 시에는 본인 자금 뿐만 아니라 대출 및 임대보증금, 가족 지원 등을 고르게 활용하여 구입하는 편

[그림 40] 거주주택 유형

		(단위: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일반 아파트	69.1	57.3	65.4	72.3	72.3	70.7	63.3	
연립/다가구/다세대 주택	15.7	19.8	17.4	14.3	14.1	14.1	23.4	
단독주택	7.5	7.3	4.5	4.9	8.6	11.2	12.7	
원룸/오피스텔	4.1	11.6	7.4	5.3	1.7	0.6	0.0	
주상복합 아파트	2.1	2.6	3.6	2.2	1.4	2.0	0.0	
상가건물	0.7	0.4	1.1	0.3	1.3	0.6	0.0	
고급빌라(타운하우스 등)	0.4	0.4	0.4	0.4	0.1	0.6	0.6	
기타	0.4	0.4	0.4	0.4	0.5	0.2	0.0	

주) n=3000

[그림 41] 주거용·주거용 외 주택의 구입자금



주) 주거용주택 보유자 n=1640, 주거용외 주택보유자n=746

- 현재 거주지에서 살고 있는 이유로 전체적으로는 ‘예전부터 살던 곳’이라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나, 연령별로는 접근성, 가격, 인프라 등 다양한 사유를 언급

- 60대 이상은 지역에 대한 관성 외에도, 가족·지인 근처, 여가·건강증진에 유리한 곳을 주요 거주이유로 꼽았음
- 30·40대는 직장/통학 접근성도 높게 고려하고 있으며, 40대의 경우 생애주기와 관련하여 '자녀 학업 목적'을 사유로 한 거주 비율도 높은 편
- 가격 요소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로 꼽는 비중이 높아짐

■ 은퇴 후 거주할 곳에 필요한 인프라는 의료시설, 공원·자연환경, 교통, 쇼핑(마트), 지인과 인접성 등의 순이며, 연령별로 노후 거주지의 희망 인프라 순서는 일부 상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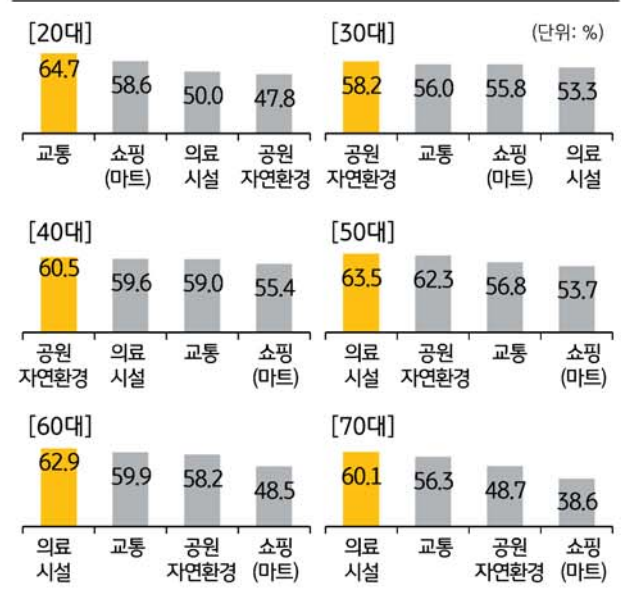
- 연령별 노후 거주지에 희망하는 인프라로 20대 이상은 '교통', 30~40대는 '공원·자연환경', 50대 이상은 '의료시설'을 최우선으로 언급

[그림 42] 현재 살고있는 지역 거주 이유

	(단위: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예전부터 살던 곳	48.6	50.4	40.2	41.1	50.1	60.5	65.2
직장/통학 접근성	38.5	39.7	46.3	42.1	38.0	30.1	21.5
가족 지인 근처	25.3	16.4	26.4	26.3	23.0	27.5	34.8
집 값 저렴	21.5	15.1	16.9	21.1	22.6	24.4	33.5
인프라, 편의 우수	18.8	16.8	16.9	16.9	19.7	22.4	22.2
여가/건강에 유리	13.3	8.6	10.4	10.4	10.9	21.0	31.6
자녀 학업 목적	9.0	5.2	5.4	14.0	12.3	3.9	3.8
치안/보안 우수	8.3	6.0	7.4	7.3	7.9	11.6	11.4
시세 차익 기대	5.9	7.3	4.7	4.2	4.6	9.4	10.8
증여/상속 받은곳	2.1	2.2	1.4	1.7	1.9	1.6	8.9

주) n=3000, 복수응답

[그림 43] 노후 거주지에 있었으면 하는 인프라



주) n=3000, 1+2+3순위

■ 현재 사는 곳에서 거주 지속 여부는 연령대별 생애주기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

- 이사 예정 없이 현재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려는 60대가 64.8%, 70대가 76.1%에 달함
- 반면 20대와 30대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을 임시 거주지로 인식하면서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이와 함께 이들의 이동성은 '자가 구입 시점'과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20대와 30대의 인식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가격요소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것으로 나온 '현재 살고 있는 지역 거주이유'의 결과를 설명해 줌 40대 또한 앞

서 자녀 학업 목적을 거주지역 선택 사유로 꼽은 것과 동일하게 ‘자녀 학업 마칠 때까지’ 현재 거주지에서 거주하겠다는 응답이 25.1%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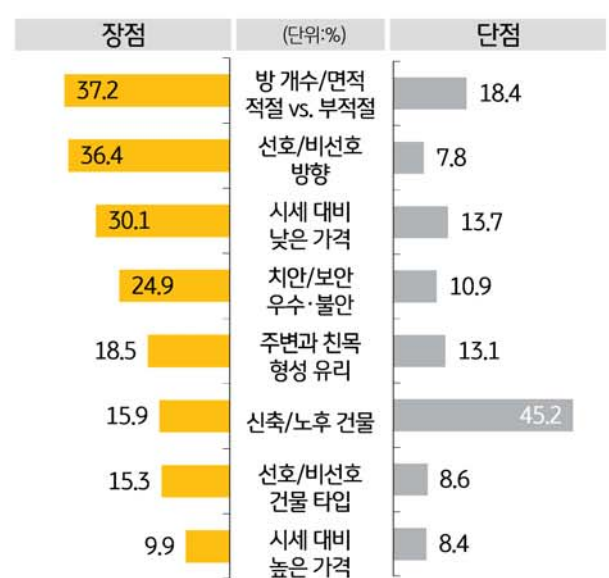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장점으로 ‘방 개수·면적이 적절함’을, 단점으로는 ‘노후 건물’이라는 점을 꼽아, 주택 만족도 측면에서는 시세보다는 물리적 거주 공간으로서의 주택의 특성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노후 준비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러한 주택의 물리적 요소들에 대한 선호/필요 또한 변화된 생활에 더 적합한 주택을 찾거나 주택 구조를 변경하는 데 발생하는 금융 필요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격요소와 전혀 별개의 요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그림 44] 현재 거주지에서 거주 지속 여부

(단위: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노후까지 지속거주 (이사에정 없음)	34.9	11.4	11.5	22.0	33.5	64.8 76.1
임시거주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	20.6	34.2	33.1	20.1	23.3	9.4 5.2
자녀 학업 마칠 때 까지	13.6	5.1	12.0	25.1	15.5	2.6 0.0
자가 주택 구입시 까지	10.4	20.3	16.5	14.2	9.0	3.7 0.6
시세 차익 있을 때 까지	9.5	11.4	9.6	9.3	10.6	9.2 4.5
계약금액/월세 안 오를 때까지	6.4	8.9	12.2	6.2	4.0	4.7 7.1
자녀 상속 /증여 시까지	3.2	5.1	2.9	1.7	3.0	4.3 6.5
기타	1.4	3.8	2.2	1.4	1.1	1.4 0.0

주) n=3000

[그림 45] 현재 거주주택의 장점·단점



주) n=3000, 복수응답

- 거주용 외 부동산을 보유하는 주요 이유 또한 연령대별로 부동산 활용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 월세로 활용하여 매월 현금흐름을 만들려는 목적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20대와 60대가 월세 활용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40대는 시세차익에 더 주목하고 있으며, 노후 거주목적으로도 별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자 하고 있음
 - 70대의 경우 자녀에게 상속시킬 자산으로 부동산을 인식하고 있는 것과 함께, 여가/건강관리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25%에 달함

■ 향후 3년 이내 부동산 매각 의향 관련 거주용과 거주용 외 부동산의 매각 희망 사유는 크게 다르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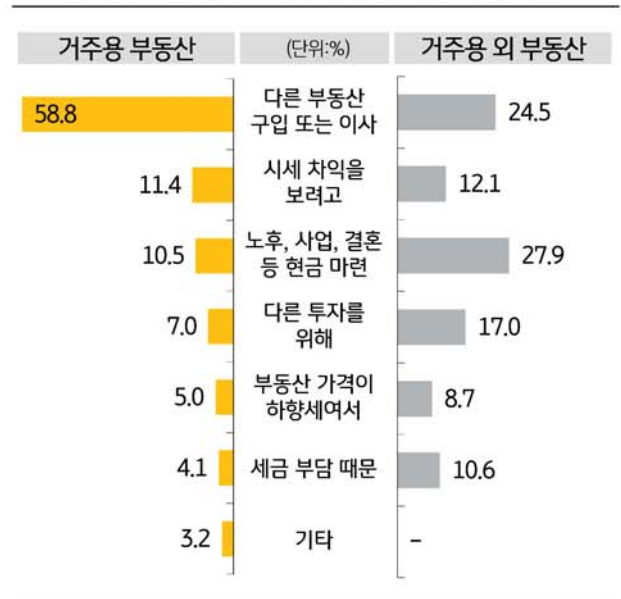
- 조사 응답자의 약 17%가 거주용 아파트를, 21.6%가 거주용 외 보유 아파트를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
- 거주용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이사”하기 위해 매각하려는 경우가 60% 가까이 달하며, “시세차익을 보려고” 매각하는 경우도 11.4%이나, 기타 투자자산으로서의 인식은 높지 않은 편
- 반면, 거주용 외 부동산은 “노후 등을 위한 현금 마련”, “다른 투자”나 “시세 차익” 등을 위해 매각한다는 동기가 거주용 부동산에 비해 확실히 높은 편
 - 이와 함께 “세금 부담 때문에” 매각하려 한다는 의견도 10.6%를 차지

[그림 46] 거주용 외 부동산의 보유·활용 목적

(단위: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월세(소득원)확보	34.6	41.4	29.4	35.3	33.0	38.4
노후 시 거주목적	28.6	24.1	26.9	33.2	30.8	22.4
시세차익 목적	28.4	25.9	22.7	32.6	30.4	24.8
자녀 상속 증여	14.9	13.8	10.1	7.6	15.6	25.6
상속받은 자산유지	12.1	13.8	17.6	9.2	10.7	12.8
가족에게 빌려줌	11.8	20.7	15.1	10.9	9.4	11.2
여가/건강 관리	11.4	17.2	10.1	8.7	8.9	14.4
사업(상업) 목적	9.0	19.0	9.2	7.6	8.0	7.2
인적네트워크 형성	7.5	19.0	10.1	7.1	5.8	5.6
선산/장묘 활용	1.2	0.0	0.0	.5	2.7	1.6

주) n=3000, 복수응답

[그림 47] 향후 3년내 부동산 매각 의향 사유



주) 부동산 매각의향자 (거주용 n=342, 거주용 외 n=265)

IV-2. 개인연금 관련 인식

■ 개인연금을 보유한 가구 중 절반 이상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연금상품을 가입하여 연금상품의 목적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32.6%)로 노후자금 마련과 함께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주요 이유로 나타남

- 노후준비도 수준별로 가입 이유에 차이를 보이는데, 준비도가 ‘미흡’한 경우는 준비도가 ‘우수’하거나 ‘보통’인 경우와 동일하게 노후자금을 마련하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 금융사 직원의 추천이나 권유로’ 가입한 경우도 많은 편임
 - 이러한 현상은 가구 월평균소득 ‘300만원 미만’인 경우도 유사
-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는 가구 월평균소득이 ‘700만원~830만원 이상’(42.1%)이거나 ‘830만원 이상’(42.2%)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짐

[그림 48] 개인연금상품을 보유하게 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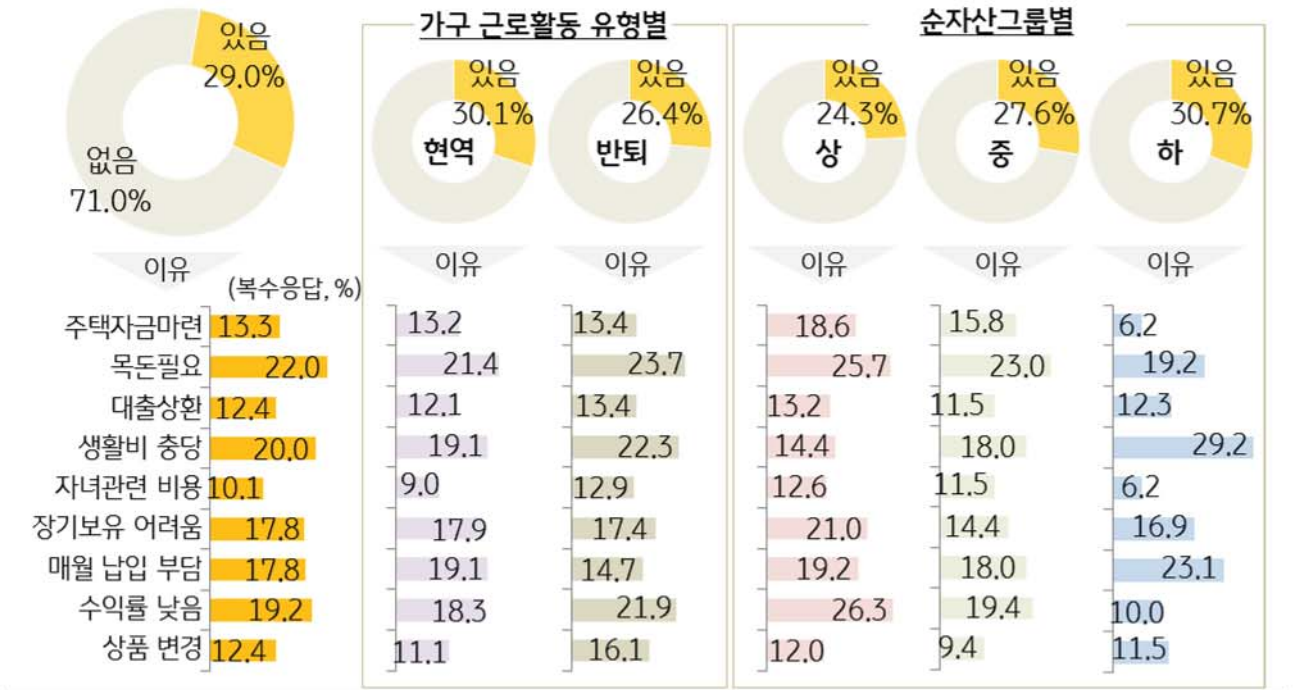
전체		(n)	(복수응답, 단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족/지인 추천/권유	금융기관 직원의 추천/권유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	타상품 대비 금리 혜택 우수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1,559)	54.3	32.6	18.3	15.3	14.1	9.0	4.8
노후준비도 수준별	우수	(420)	53.3	<u>42.4</u>	16.2	12.9	19.0	11.7	7.9
	보통	(553)	55.0	29.3	17.0	14.1	14.1	9.8	4.5
	미흡	(586)	54.4	28.7	<u>21.2</u>	<u>18.3</u>	10.6	6.5	2.9
가구 월평균 소득별	~ 300만원 미만	(135)	49.6	22.2	<u>24.4</u>	15.6	14.8	6.7	3.7
	~ 500만원 미만	(408)	58.1	27.9	19.6	16.4	14.5	6.4	4.7
	~ 700만원 미만	(513)	54.0	29.6	17.7	15.4	13.3	<u>12.3</u>	<u>5.8</u>
	~ 830만원 미만	(259)	54.4	<u>42.1</u>	13.5	15.1	13.9	6.9	4.2
	830만원 이상~	(244)	51.2	<u>42.2</u>	19.3	13.5	15.2	<u>10.2</u>	4.1

주) “전체”는 은퇴전가구 중 개인연금을 보유한 가구

- 개인연금상품을 가입한 후 중도해지나 환매를 한 경우는 은퇴전가구 전체의 1/3정도인 29.0%이며, 주된 이유는 ‘목돈마련을 위해’(22.0%), ‘생활비를 충당하려고’(20.0%), ‘수익률이 낮아서’(19.2%)
 - 개인연금을 중도해지나 환매한 경험이 있는 가구를 근로활동 유형별로 보면 반퇴가구(26.4%)에 비해 현역가구(30.1%)가 중도해지/환매를 한 경우가 많음
 - 현역가구는 ‘목돈마련’과 ‘생활비 충당’, ‘매월 납입 부담’이 있어 중도해약·환매를 한 경우가 많은데, 반퇴가구는 ‘목돈마련’과 ‘생활비 충당’의 이유 이외에 ‘수익률이 낮아서’ 한 경우가 많음
 - 순자산 그룹별로는 ‘하’그룹이 ‘상’그룹이나 ‘중’그룹에 비해 중도해약·환매 경험이 많은데, 그 이유는 그룹별로 차이가 큼

- 순자산 '상' 그룹은 '수익률이 낮아서'(26.3%), '목돈마련을 위해'(25.7%) 중도해지나 환매를 하고, '중' 그룹은 '목돈마련'(23.0%)이 많으나, '하' 그룹은 '생활비 충당'(29.2%)과 '매월 납입에 대한 부담'(23.1%)으로 해지나 환매를 하여 '상', '중' 그룹에 비해 여력 부족이 작용

[그림 49] 은퇴전 가구의 개인연금상품 중도해지/환매 경험 및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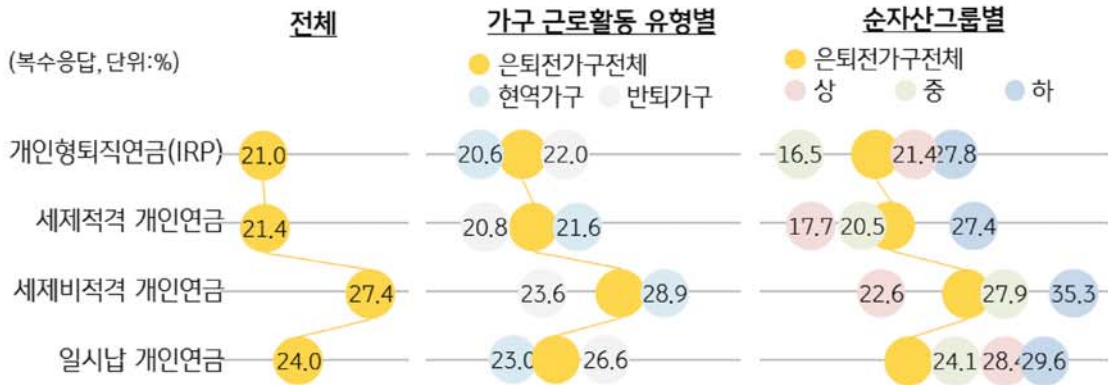


주) 은퇴전가구 전체 n=2,831, 가구 근로활동 유형별 현역가구 n=1,984, 반퇴가구 n=847, 순자산그룹별 상 n=687, 중 n=504, 하 n=423

- 은퇴전가구가 보유한 개인상품 중 중도해지나 환매가 가장 많은 상품은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으로 보유자의 27.4%가 중도해지나 환매한 경험이 있음
 -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장기보유를 통한 세제혜택이 있고, 해지시 위약부담이 적어 다른 개인연금상품에 비해 중도해지/환매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임
 - 가구특성별로 중도해지/환매율이 높은 상품이 차이가 나타나는데, 반퇴가구의 경우 현역가구에 비해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의 환매율보다 일시납 개인연금의 중도해지·환매율이 높음
 - 반퇴가구의 경우 완전은퇴가 멀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의 세제혜택을 받을 시기가 곧 도래하여 일시납 개인연금의 중도해지·환매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추정
 - 순자산 '하'그룹은 전반적으로 개인연금상품마다 중도해지/환매율이 높는데, 특히 '세제비적격 개인연금'과 '일시납 개인연금'이 높음

- '상'그룹은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모두 상대적으로 중도해지/환매율이 낮게 나타나며, '중'그룹은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의 중도해지/환매율이 높음

[그림 50] 은퇴전 가구의 개인연금상품 중도해지/환매율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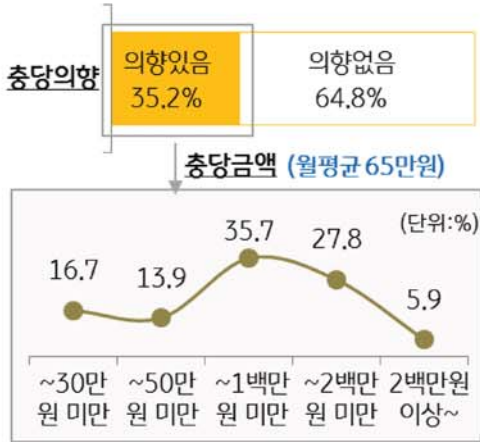
주1) 은퇴전가구 전체 n=2,831, 가구 근로활동 유형별 현역가구 n=1,984, 반퇴가구 n=847, 순자산그룹별 상 n=687, 중 n=504, 하 n=423

주2) 중도해지·환매율: 개인연금상품별 보유자 중 중도해지하거나 환매한 비율

- 은퇴전·중간규모 자산 가구에 노후에 희망하는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개인연금으로 부족금을 충당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35.2%만 활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추가 납입자금은 지출을 줄이거나 늘어난 소득으로 마련하겠다는 경우가 많음
 - 개인연금을 활용한 충당의향이 있는 가구는 월평균 65만원 정도의 자금을 충당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월 50만원~1백만원미만'으로 준비하겠다는 경우가 35.7%로 가장 많고, '월 1백만원~2백만원미만'이 27.8%로 다음 순위를 차지
 - 추가 납입할 개인연금액을 충당하는 방법은 가구의 지출 절약분과 소득 증가분으로 하려는 경우가 각각 44.8%, 35.9%로 많음
 - 기타 안정형 금융상품이나 투자형 금융상품, 유동성 금융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여 개인연금을 늘리려는 경우도 많은 편
- 개인연금을 활용한 노후부족자금 충당의향이 높은 가구는 △현재도 개인연금을 보유 △은퇴설계서비스를 받아 본 적이 있음 △가구주가 30대이하인 젊은층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충당방법은 지출을 줄여서 하겠다는 경우가 가장 많음
 - 특히 개인연금을 활용한 노후부족자금을 충당하려는 의향이 높은 응답자는 은퇴설계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경우로 56.3%가 개인연금 활용의향이 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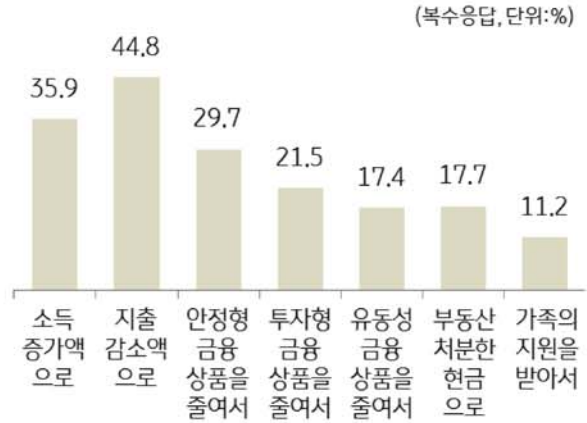
- 이들은 추가 납입할 개인연금액을 충당하는 방법도 ‘지출 감소액으로’ 하는 방법 외에 ‘투자형 금융 상품을 줄여서’ 개인연금으로 옮기겠다는 의견도 상당히 높음

[그림 51] 개인연금을 활용한 노후부족자금 충당의향



주) 은퇴전가구 중 노후 생활자금 부족예상 가구 n=2,406

[그림 52] 추가 개인연금액 충당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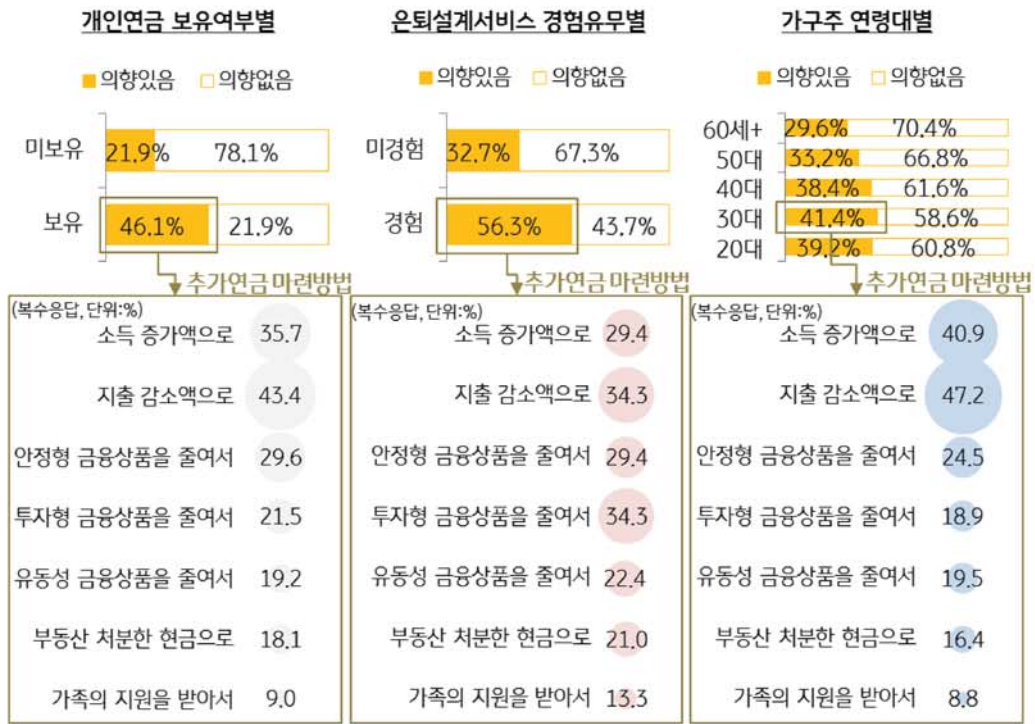
주) 개인연금을 활용하여 노후부족자금을 충당하고 싶은 경우 n=846

■ 연금 관련 랩상품⁶으로 2016년부터 국내 출시된 타겟데이트펀드(TDF)는 32.4%가 ‘상품을 들어봤거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 2017년(18.6%)보다 인지도가 크게 상승

- TDF라는 이름을 ‘들어보았으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24.1%)거나 ‘대략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6.3%),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2.0%)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TDF 인지도가 크게 개선된 그룹은 개인연금을 ‘보유’한 경우나 노후준비도가 ‘우수’한 경우, 가구 근로활동 유형으로는 ‘반퇴가구’의 경우, 가구 월평균소득 ‘700만원이상’인 경우 등
 - 개인연금이 있는 경우 2017년 21.2% → 2018년 41.7%로 20.5%p 증가, 노후준비도 우수한 경우 23.6% → 47.1%로 23.5%p 증가, 반퇴가구의 경우 12.0% → 31.5%로 21.5%p 증가
 - 가구 월평균소득별로는 ‘700만원~830만원 미만’의 경우는 21.2% → 41.2%로 20.0%p 증가하였고, ‘830만원이상’(연소득 1억원이상)인 경우 26.6% → 46.8%로 20.2%p 증가

⁶ 타겟데이트펀드(Target Date Fund, TDF)는 투자자의 은퇴시점을 목표로 설정하여 사전에 정한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펀드(자산배분을 자동으로 해 주는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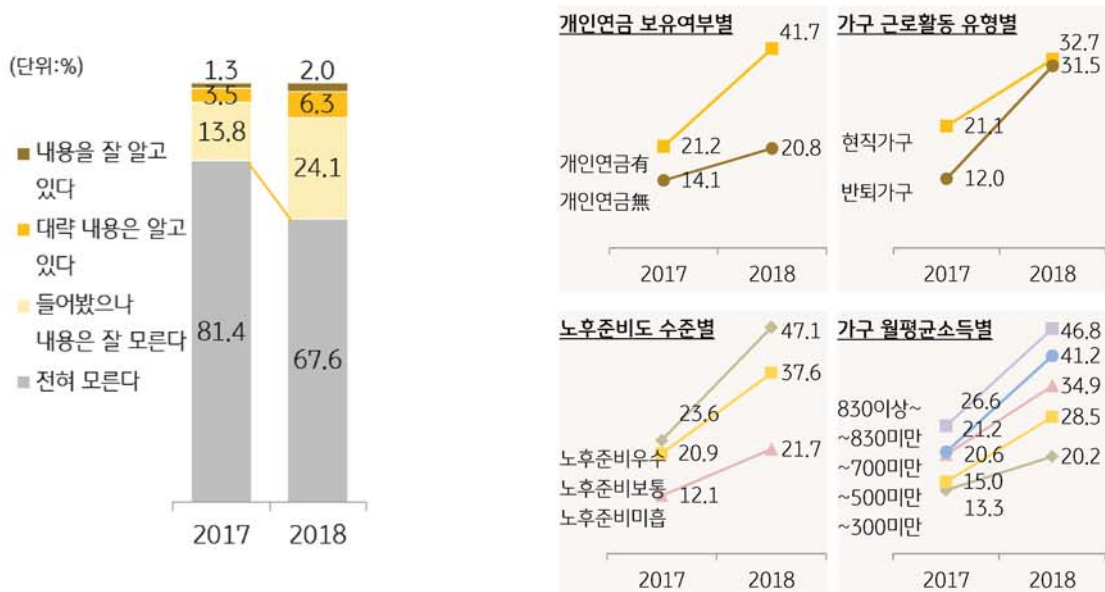
[그림 53] 응답자 특성별 개인연금을 활용한 노후부족자금 총당의향과 추가 개인연금 총당방법



주1) 은퇴전가구 중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가구 대상 (n=2,406)

주2) 개인연금 보유여부별 보유 n=1,318, 미보유 n=1,088, / 은퇴설계서비스 경험유무별 경험 n=254, 미경험 n=2,152 / 가구주 연령대별 20대 n=51, 30대 n=384, 40대 n=575, 50대 n=639, 60세이상 n=416

[그림 54] 타겟데이트펀드에 대한 인지도



주) 전체 은퇴전가구 2017년 n=1,759, 2018년 n=2,831

IV-3. 목돈 지출 및 충당 방법

- 과거 3년 이내의 목돈 지출 중 규모가 큰 항목은 ‘자녀결혼’ ‘유학자금’의 순이며, 지출 경험은 여행비, 가전제품, 차량구매 등 물품구입 관련 항목이 높음
 - 경조사비와 교육비는 목돈 지출 규모는 다른 항목에 비해 큰 편이나, 사교육비를 제외하면 지출 경험자는 10% 이하 수준으로 지출 경험 빈도는 다른 항목에 비해 높지 않음
 - 의료비 및 여행비와 가전제품 구입은 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나 지출 경험자는 많은 편이며, 이사나 인테리어 등 주택 관련 지출 발생 시 약 1200~1400만원 수준을 소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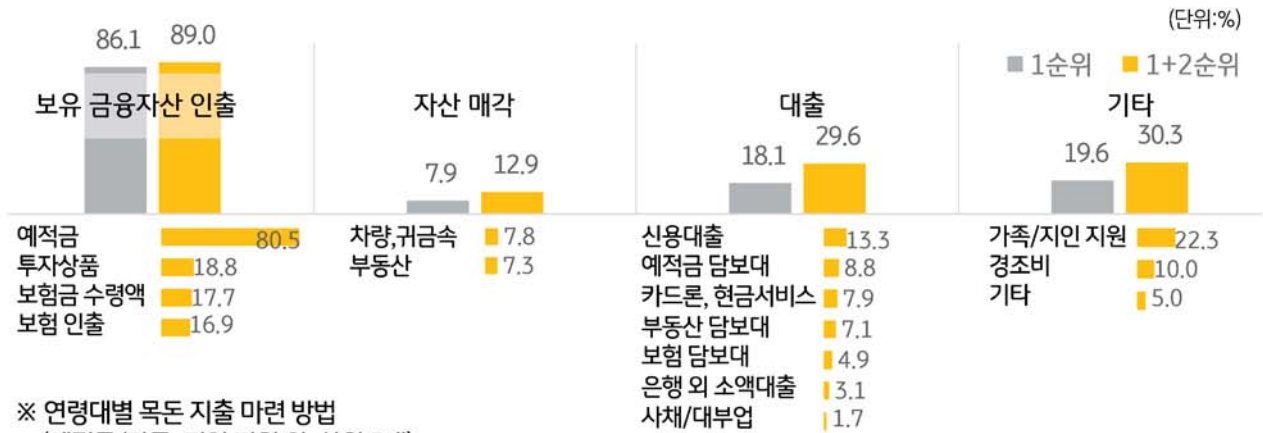
[그림 55] 과거 3년 이내 지출한 목돈 지출 규모 및 경험



주) n=3000, 복수응답 / 지출 규모는 실제 지출경험자를 대상으로 산출

- 과거 3년 이내 목돈 지출은 대부분(89.0%)의 경우 보유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마련하였으며, 대출과 가족·지인의 지원을 통해서도 필요 금액을 충당
 - 금융자산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예적금이 목돈 지출에 가장 먼저, 많이 활용되며, 목돈 지출에 있어서는 가족과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상당수(22.3%)
 - 예적금과 가족·지인 지원을 제외한 목돈 마련 방법은 연령대별로 일부 차이가 나타남
 - 60·70대는 목돈 지출에 경조비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 다른 항목은 큰 차이는 없으나 20대는 차량·귀금속 등 자산 매각, 40대와 70대는 예적금 담보대, 50대는 카드론·현금서비스도 목돈 마련 방법으로 활용

[그림 56] 과거 3년 이내 지출한 목돈 마련 방법



※ 연령대별 목돈 지출 마련 방법 (예적금/가족·지인 지원 외, 상위 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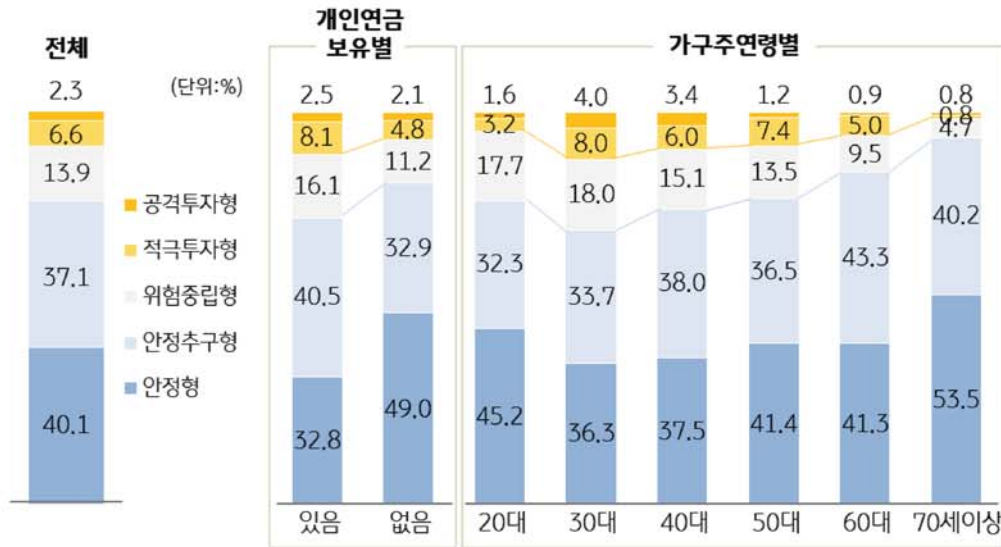
순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1	투자상품 인출	보험금 수령	보험 인출	투자상품 인출	경조비	보험금 수령
2	보험금 수령	투자상품 인출	투자상품 인출	보험 인출	투자상품 인출	경조비
3	보험 인출	보험 인출	보험금 수령	보험금 수령	보험금 수령	보험 인출
4	신용대출	신용대출	신용대출	신용대출	보험 인출	투자상품 인출
5	차량 귀금속 매각	경조비	예적금 담보대	카드론/현금서비스	신용대출	예적금 담보대

주) n=2502, 1+2순위

IV-4. 투자유형 및 자산관리 인식

- 은퇴전가구의 77.2%가 ‘안정형’과 ‘안정추구형’인 가운데, 개인연금을 보유한 가구나 30대 가구주는 상대적으로 공격적 투자성향을 보이고 있음
 - 은퇴전가구의 77.2%는 ‘안정형과 안정추구형’이며, ‘공격투자형과 적극투자형’은 8.9%로 전반적으로 안정적 투자성향을 보이며 공격적 자산증식보다 자산집적·유지를 선호
 - 투자성향은 가구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개인연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안정+안정추구형 81.9%)는 ‘보유한 경우’(73.3%)에 비해 안정적 투자성향을 나타내는 비중이 높고, 가구주 나이가 ‘30대’인 경우(70.0%)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안정적 투자성향 비중이 낮음
 - 가구주 나이가 ‘30대’인 경우 ‘안정형+안정추구형’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0.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고 ‘20대와 40대, 50대’는 3/4이상이 안정적 투자성향을 보이며, 70대의 경우는 거의 전부인 93.7%가 안정적 성향을 보유
- 금융상품 투자지식 수준 또한 투자성향과 연관성이 있는데, 조사 대상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안정형’과 ‘안정추구형’은 금융지식이 다른 유형에 비해 부족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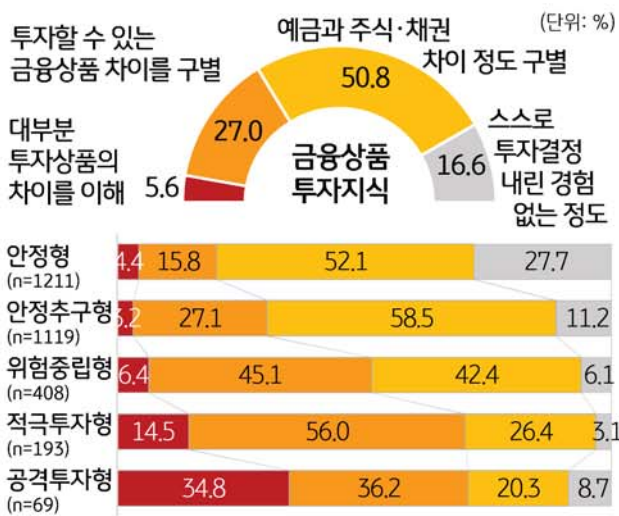
[그림 57] 은퇴전 가구의 금융자산 투자성향



주: 은퇴전가구 전체 n=2,831, 개인연금보유별 있음 n=1,559, 없음 n=1,272, 가구주연령별 20대 n=62, 30대 n=427, 40대 n=648, 50대 n=747, 60대 n=443, 70세이상 n=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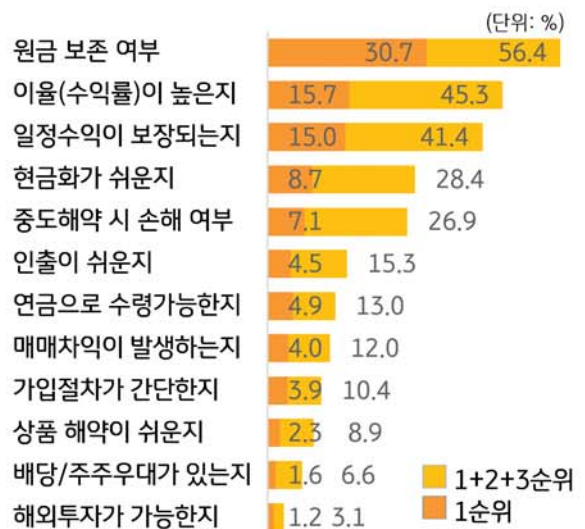
- ‘공격투자형’은 “금융상품을 비롯한 모든 투자상품의 차이를 이해”하는 경우가 34.8%를 차지하나, ‘안정형’의 경우 4.4%만이 그렇다고 응답
- 반면 ‘안정형’은 “투자결정을 스스로 내린 경험이 없는 수준”이 27.7%를 차지하는 등 투자성향 간 금융지식의 차이가 매우 큰 편으로 나타남

[그림 58] 금융상품 투자관련 지식 수준



주) 전체 n=3000

[그림 59] 자산관리 투자 원칙



주) 전체 n=3000

- 자산 투자처를 선택하거나 자산 배분하는 데 있어서 ‘원금 보존’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절반을 넘고 있으며, 이어서 ‘이율·수익률’, ‘일정수익 보장’의 순
 - 본 3개를 자산관리 원칙으로 선택한 경우가 4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음
 - 투자 원칙으로서 연금 수령 여부나 해외투자에 관한 관심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자산별 활용 목적을 보면, 안정형 자산은 종합적인 활용이 가능한 자산, 연금상품은 노후 대비, 투자자산은 단기 생활비 및 중장기 목돈용, 부동산은 노후까지 유지할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 다만 연금상품의 경우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은 노후대비를 위한 목적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다른 연금상품들은 상대적으로 노후활용 자산으로서의 인식이 그리 높지 않은 편
 - 투자상품 중에서는 주식 직접투자를 활용하려는 인식이 강했는데, 주식투자를 단기생활비 마련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점에 주목
 - 노후까지 유지할 자산으로서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높은 선호도는 노후자금으로서의 활용 측면 뿐만 아니라, 물리적 거주 공간으로서 노후까지 유지하고 싶다는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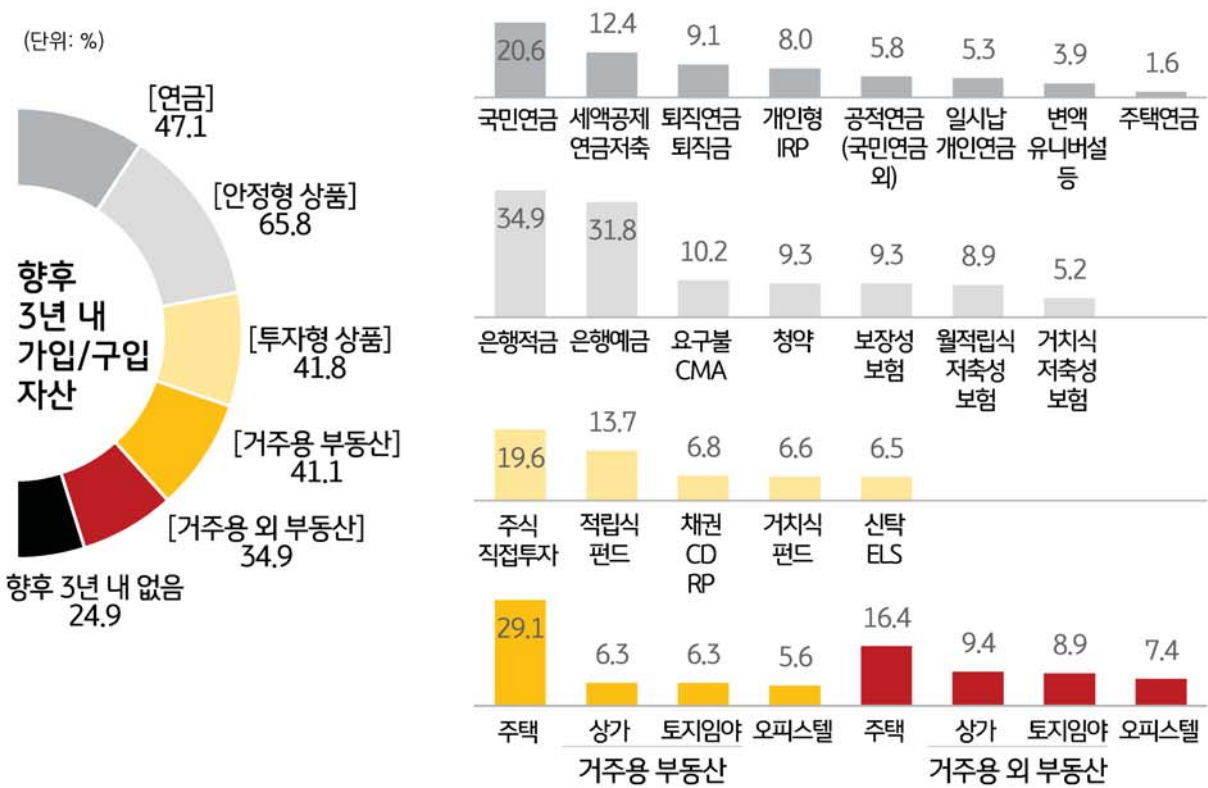
[그림 60] 자산별 활용 목적

(단위: %)		“단기생활비 마련”	“중장기 목돈 마련”	“노후까지 유지”
안정형 상품	은행 예금	49.9	41.1	30.9
	은행 적금	37.8	36.9	22.9
	입출금, CMA	37.1	26.7	18.8
	청약	9.8	10.9	8.8
	보장성 보험	9.4	11.8	20.1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4.4	5.7	5.2
	거치식 저축성 보험	1.8	2.4	2.0
		83.8	78.7	68.6
연금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8.9	8.3	15.5
	개인형IRP	3.5	3.7	6.4
	일시납 개인연금	2.8	2.5	3.1
	변액 유니버설 등	2.7	4.0	5.3
		16.3	16.5	25.3
투자형 상품	주식(직접투자)	18.7	15.9	9.6
	월 적립식 펀드	4.6	5.1	3.5
	거치식 펀드	1.9	2.6	1.5
	채권, CD/RP 등	1.6	2.0	1.1
	신탁, ELS, ELB	1.4	1.9	1.2
		25.8	24.6	15.7
부동산	거주용 부동산	17.2	23.1	47.3
	거주용 외 부동산	9.0	10.4	11.1
		24.9	31.4	52.2
	없음	8.1	10.7	9.6

주) n=3000, 1+2+3순위

- 향후 3년 내 가입·구입하거나 추가 적립의향이 있는 자산은 각 항목별로 ‘국민연금’, ‘은행 적금’, ‘주식 직접투자’, ‘주택’ 등인 것으로 나타남
 - 연금 중에서는 국민연금은 인식 개선으로 임의가입자와 추가납입 등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절세 관련 상품인 연금저축, 개인형 IRP 등을 거론
 - 부동산의 경우 거주용(41.1%)과 거주용 외(34.9%) 합산 시 투자자산으로서 안정형 상품보다 더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그림 61] 향후 3년 내 가입·구입·추가적립 의향 상품·자산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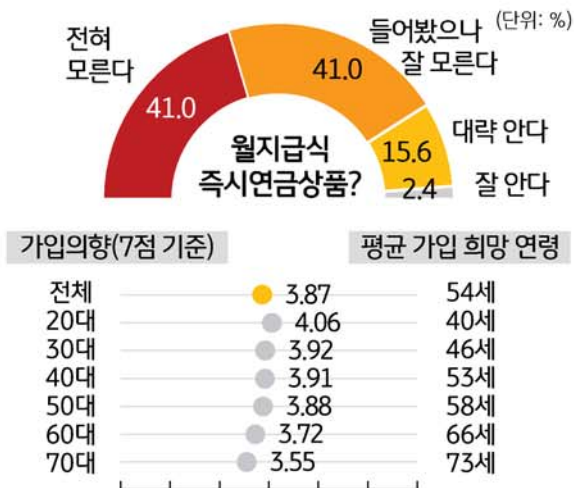


주) n=3000, 복수응답

- 월지급식 즉시연금은 낮은 인지도에 비해서는 중간 수준의 가입의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입한다면 54세 무렵부터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
 - 월지급식 즉시연금을 (대략 & 잘) 알고 있는 경우는 조사 대상의 18%에 지나지 않았으나, 가입의향 평균은 3.87점 (7점 기준)으로 나타나 낮은 인지도에 비해 가입의향은 긍정적인 편
 - 특히 20대의 경우 4.06점으로 중간 이상의 가입의향을 보여주는 등, 젊은 세대일수록 월지급식 즉시연금 가입의향이 높은 편

- 노후 매월 현금흐름을 만들기 위해 월지급식 즉시연금을 활용하더라도, 예치 가능한 금융자산 중 일부만을 넣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향후 목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평생 받는 경우 월지급액이 그리 높지 않아 보여서' '초기에 넣을 금액이 커서' '장기상품의 안정성이 불안해서' 등을 언급

[그림 62] 월지급식 즉시연금상품 인지도, 가입의향



주) n=3000, 가입희망연령 응답자 n=880

[그림 63] 월지급식 즉시연금에 일부 자산만 넣는 이유

목돈, 유동자금이 필요하므로	29.1
평생 받을 경우 월 지급액이 적어져서	20.3
초기에 넣을 금액이 너무 커서	19.3
장기상품의 안정성이 불안해서	18.7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18.2
국민연금 등 다른 월소득이 있어서	17.9
다른 상품 수익률이 더 높을것 같아서	14.0
일부만 전환해도 충분해서	13.5
만기가 은퇴 기간에 비해 짧아서	12.5
스스로 금융상품 관리가 가능해서	7.9
상속/증여 자금을 남겨둬야 해서	6.8

(단위: %)

주) n=2316, 1+2순위

[참고1 : 연구방법]

- 조사 대상 : 20세 이상 74세 이하 가구 내 금융의사결정자 3,000명
서울·경기·6대 광역시(세종시 포함) 거주자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Online Survey) 및
일대일면접조사(Face To Face Survey) 병행 실시
- 설문 기간 : 2018.11.29(목)~12.12(수), 2주간

< 연구방법 >

2차 자료 분석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통계연보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집
- 국방부 군인연금 군인연금 통계연보
- 사학연금 통계자료

설문조사방법

대 상 자

- 서울 및 경기, 6대광역시(세종시포함)
- 20~74세의 가구내 금융의사결정자

설문조사기간

- 2018년 11월 29일 ~ 12월 12일

표본추출방법

- 지역/가구주연령을 고려한 유의할당추출(Quota sampling)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조사와 대면조사 병행

표본 규모

- 총 3,000명

	전체	가구주 연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4세
전체	3,000	232	557	757	787	509	158
서울	852	88	166	197	205	148	48
경기도	1039	63	202	288	280	158	48
인천	244	15	45	63	69	40	12
부산	298	21	45	65	80	66	21
대전	133	15	24	33	33	22	6
대구	209	13	33	52	59	40	12
광주	129	12	24	34	33	19	7
울산	96	5	18	25	28	16	4

[참고2 : 용어정의]

■ 가구 총자산 구분

총자산	부동산(주택)자산 + 일반금융자산 + 노후대비금융자산
부동산(주택)자산	전국 주택 시가 총액
일반금융자산	가계 및 비영리단체 보유 금융자산 - 퇴직연금 적립금 - 개인연금 적립금
노후대비금융자산	국민연금 적립금 + 국민연금 납입상태 기준 향후 기대 수령액 현재가치 + 특수직역연금 적립금 + 특수직역연금 납입상태 기준 향후 기대 수령액 현재가치 + 퇴직연금 적립금 + 개인연금 적립금

■ 연금상품 구분

공적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교직원, 군인)
사적연금	퇴직연금(개인형IRP 포함), 개인연금
개인연금	세제적격/세제비적격 개인연금, 일시형 개인연금
세제적격 개인연금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연금저축외 저축성보험, 일반펀드, 일반신탁

■ 연금보유 5 Type

연금종합형	공적연금+퇴직연금+(세제적격 또는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을 보유한 3층 구조 연금 보유 가구, 절세지향형 제외
절세지향형	공적연금+퇴직연금+세제적격 개인연금 보유 가구
관심부족형	공적연금+퇴직연금 보유가구
종합지향형	공적연금+(세제적격 또는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보유
여력부족형	공적연금만 보유

■ 소득그룹 구분

상위그룹	가구주 연령별 가구 경상소득 상위 15~35%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가구
중위그룹	가구주 연령별 가구 경상소득 상위 40~60%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가구
하위그룹	가구주 연령별 가구 경상소득 상위 65~85%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가구

■ 순자산그룹 구분

상위그룹	가구주 연령별 가구 순자산 상위 15~35%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가구
중위그룹	가구주 연령별 가구 순자산 상위 40~60%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가구
하위그룹	가구주 연령별 가구 순자산 상위 65~85%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가구

■ 근로활동 상태에 따른 가구유형

현직가구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가 근로활동 상태인 가구
반퇴가구	가구주나 가구주 배우자가 반퇴 시기에 있는 가구 (현직 가구 제외)
은퇴가구	가구주나 배우자가 모두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

■ 가구원수와 자녀유무에 따른 가구유형

1인가구	향후 결혼의향이 없거나 자녀없이 배우자와 이혼, 별서, 사별 등으로 동거자가 없는 가구
부부가구	현재 무자녀이고, 향후에도 자녀 계획이 없는 부부가구
부모-자녀가구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조부모 무관)

발행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연구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세우빌딩 12층

연구자 센 터 장 황원경 (wk.hwang@kbfq.com)
연구위원 정 인 (paisley@kbfq.com)
연구위원 김진성 (jins.kim@kbfq.com)

본 보고서는 KB금융그룹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의 승인없이 본 보고서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작아도 확실하게, 꾸준히 행복하고 싶어요

이제 와 더 큰 돈이나 화려한 삶을
욕심내지 않아요
이 편안함이 계속되는 게 행복이죠
KB골드라이프가 있어서
가능할거라 믿어요

일년에 열 두번,
월급날의 행복을 은퇴 후에도

**KB골드라이프
12번의 행복**

KB 골드라이프 **12번의 행복**

국내외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상품만을 엄선한 맞춤형 분할지급식 상품 Selection 브랜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고객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8-1296호(유효기간: 2018.12.14~2019.03.31)

